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6월 27일(음력 5월 13일) 수요일 (주간) 제 634 호

영화로 '마음의 병' 다스려요

영화치료, 접근성 높고 치료효과 뛰어나 '新 심리치료 요법' 부상

영상의 시대다. 오늘날 영상은 문자를 대신하는 정보 전달 매체로 자리 잡았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의 범람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지만, 영상 그 중에서도 영화를 잘 가려보면 심리문제를 극복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근 새로운 심리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화치료(cinema therapy)'가 그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친숙한 영화를 심리치료의 매체로 활용하는 '영화치료'는 지난 1930년대 유행했던 독서요법이 시대상황에 맞게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화 속 상황과 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접근이 용이하고, 상황에 대한 몰입과 감동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영화치료의 장점이다.

지난 6월 13일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주최한 '영화치료' 월례특강에서도 영화치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영화치료전문가 김준형 이사(한국영상응용연구소 상담센터 '사이')의 지도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는 영화 '하치이야기'를 감상함으로써 '슬픔과 상실감 다루기'를 시도했다. '하치이야기'는 실화에 기초한 것으로, 매일 기차역에서 출퇴근하는 주인을 마중하던 하치라는 개가 주인이 죽은 후에도 10년 간 기차역에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스토리다. 이날 참석한 40여 명의 상담원들은 1시간여 동안 영화를 감상한 후 그룹별 토론을 실시했다. 가장 먼저 말문이 열리는 이는 역시 영화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다. 애완견을 키웠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당시 자신의 애완견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게 됐다는 고백도 잇따랐다.

김 이사는 "영화를 보며 슬퍼하는 것은 치유의 과정이고, 마음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슬픔은 변형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김 이사는 "영화가 심리치료 매체로 이용될 수 있는 이유는 관객이 객관적이고 의식적인 자아를 가진 상태에서 영화의 주인공이나 상황에 동일시를 느끼기 때문"이라며 "영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므로 치유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화치료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영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영화치료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어떤' 영화를 봐야할까? 사람마다 영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시각차가 크고, 오락영화의 경우 치료효과가 크지 않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과 스토리 중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유사하고 치유 효과가 큰 영화를 고르는 것이 좋다.

한국영상응용연구소(visualtherapy.co.kr) 등의 전문기관에서는 상황에 맞는 영화를 선별해 제공하고 있다. 대학입시에 실패한 학생에게는 '제리 맥과이어'를, 외모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뮤리엘의 웨딩'을, 대인공포증 환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순 없다'를 권하는 식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느냐다. 영화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문가의 지도다. 영화는 접근이 쉽고 치료효과도 뛰어나지만 잔류효과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즉, 영화를 보고 난 감동이나 치유심리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그 효과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안내가 필수적이다.

치료적 영화 관람을 위해서는 영화 줄거리 대신 인물에, 액션 대신 관계에, 결과 대신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영화가 함축하고 있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 관람 후 치료자와 상담가 사이에 토론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영화평론가 심영섭 교수(대구사이버대)는 "앞으로 영화나 영상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영상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은 영화와 심리학의 결합은 디지털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심리치료방법이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소백산 보발재에서 단오날 그네를 타고 있다.

'번뇌와 시름' 저 하늘로 훨훨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서 단오날 그네뛰기 행사

"으~싸." "우~와."

단오날(음력 5월 5일)인 6월 19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의 그네뛰기는 약 30분정도 산비탈을 따라 걸어야 나오는 소백산 보발재에서 펼쳐졌다. 키가 족히 30m는 되는 노송에 15m높이의 그네 2개가 매달렸다.

종정 도용 스님이 그네를 타자 참가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온다. 총무원장, 종회의장 스님도 차례로 그네를 탄다. 이어 비구 비구니 스님과 우바이 우바새들이 고함을 지르며 신나게 그네를 탄다.

구경하거나 대기하는 사람들은 풍성하게 준비된 쑥떡과 과일, 음료수 등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세상살이의 시름을 그네에 태워 멀리 하늘로 날려 버린다.

단오절이자 구인사 창건 기념일인 오늘 하루만큼은 모두들 짬을 내어 보발재에 올라 상주 대중들이 떡을 쪄서 나누어 먹고 큰 나무에 그네를 걸어놓고 그네뛰기를 즐긴다.

이곳에서 시원한 산바람, 맑은 웃음, 맛있는 음식이 어우러지니 오늘 하루 극락이 따로 없다. 그래선지 신도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구인사 그네뛰기는 62년 전 구인사를 창건한 상월원각대조사님 때부터 단오날에 행해지는 풍습"이라며 "음력 5월 5일 단오날은 대조사께서 국내와 중국을 만행하시다가 1945년 제자들과 함께 구인사에 법당과 요사채 등을 지어 남신도 8명과 입주한 구인사 개창일이다. 이를 기념해 매년 그네뛰기를 하고, 5년마다 기념법회를 거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양/ 글=김원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社告 '벽암록' 완역 기념 역자초청 특강

"벽암록, 언어로 언어를 깨부수다"

■역자: 석지현
■강의내용: '벽암록'의 성립배경과 가치, 읽기방법 등.
■일시: 7월 19(목)일 오후 7시
■장소: 출판문화회관 강당(서울 사간동)
■대상: 150명 선착순(예약접수자 우선)
■수강료: 1인 1만원
■접수방법: 전화로 예약(02-2004-8233) 후 계좌 입금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사은 행사: 예약자 선착순 100명 불서 1권 증정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선 무 도
선체조/선요가/선호흡/선기공/선무술
선무도 전국지원
·경주 총본원 골굴사 및 협회 054)744-1689, 054)742-1605 www.sunmudo.com
·서울 : 종로 02)763-2980
서초 02)581-6521 방배 02)599-5554
송파 02)3431-4889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7
·인천 032)541-6301 일산 031)924-5655
·안산 031)475-2600 청주 043)285-1732
·대구 053)525-0718 포항 054)275-6069
·울산 052)276-6271 양산 055)382-5074
·부산 :
중앙 051)464-1380 금정 051)515-8323
서면 051)818-0166
국외지원
·U.S.A L.A 213-487-5377
·Canada Toronto 941-656-9642
·Austria Salzburg 06-215-5394
·France Toulouse 05-61-08-1010
(사)세계선무도협회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I love Buddha / 부처님 법 나누기

용정운(www.zentoon.com)



새연재 안내 ▶월암 스님의 '선과 노동' 11면에 연재

선종의 발흥지인 중국에서 선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북경대)를 받은 월암 스님이 '선과 노동'의 문제를 간결하고 힘 있게 풀어냅니다. 월암 스님은 금주부터 11면에 연재되는 '선과 노동'의 내용을 7월 1일 오전 11시 안성 도피안사 개산 15주년 기념 법회에서 강연할 계획입니다.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계좌번호: 006-01-0785-361
국민은행(예금주:(주)에이치비엠씨)

전기가 필요없는 태양광 정원등

◆원리 : 상단에 부착된 태양전판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해두었다가 밤에 자동으로 불이 켜진다.
◆장점 : · 전기료가 들지않는다. · 전선이 없으므로 배선공사가 필요없다.
· 전구수명은 반영구적이다. 자동으로 충전과 점등이 되므로 부재시 방범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태양광 정원등(1) 230cm ~~600,000~~ → 360,000
태양광 정원등(2) 160cm ~~220,000~~ → 150,000
태양광 정원등(3) 150cm ~~180,000~~ → 110,000
태양광 정원등(4) 100cm ~~178,000~~ → 120,000
태양광 정원등(5) 100cm ~~178,000~~ → 120,000
태양광 정원등(6) 103cm ~~200,000~~ → 140,000
태양광 정원등(7) 83cm ~~280,000~~ → 220,000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사찰 · 암자 · 토굴 및 현대불교신문 독자분께 할인하여 드리며, 작은 사은품도 준비했습니다.

태양광 벽등
~~56,000~~ 46,000
~~56,000~~ 46,000
~~56,000~~ 42,000
~~56,000~~ 42,000

태양광 잔디등(小)
53cm ~~55,000~~ → 33,000
47cm ~~59,000~~ → 56,000
49cm ~~55,000~~ → 30,000
31cm ~~56,000~~ → 40,000

다용도 태양광 랜턴
1.전원없는 토굴/암자에 전등용으로 사용
2. 손전등으로 사용 3. 휴대용이, 이동용이
4. 디카/CD기/라디오/MP3등 AA SIZE 밧데리가 장착되는 제품 사용가능
~~100,000~~ → 70,000

* 사은품은 태양광스탠드로서 3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드립니다.

태양광 데크등
50cm ~~58,000~~ → 60,000
30만이상고객께 드리는 사은품

코스모스환보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8 광장B/D 401호 TEL 032)347-0830~1 / FAX 032)346-0830
http://www.cosmoshuanbo.com 계좌번호 : 농협 216014-51-257956 (예금주:오승열)

韓日 '불교문화교류대회' 개최

고려팔만대장경 역사 고찰·성지순례 참여 등

제28차 한 · 일불교문화교류대회(대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가 6월 26~28일 합천 해인사와 대구 인터불고호텔,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린다.

한일불교문화 교류대회는 26일 오후 6시 환영만찬에 이어 27일 오전 8시 30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고려팔만대장경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주제로 개최된다. 세미나에는 한국측에서 종림 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일본측에서 송영지해(松永知海) 스님(일본불교대학 인문학과 교수)이 주제발표한다.

2부 세계평화기원법회는 27일 오후 1시 해인사에서 봉행된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인경 및 법계도 체험, 범주 스님 달마도 시연 등의 문화행사에도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28일부터 성지순례에 참여한다. 성지순례지는 부여 불교전래사은비와 개태사 등. 인근사찰을 방문한 뒤 조계사를 참배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다례재 봉행 장면.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 봉행

조계종조 도의 국사 다례재가 6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다례재에는 원로의원 보성, 활안, 동춘, 혜정, 혜승, 정무 스님 등이 참석했다.

종정 법전 스님은 보성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국사께서는 법계(法界)에 충만한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자오자증(自悟自證)하는 길을 열었다. 진리의 본체는 두두물물(頭頭物物)속에 드러나 있다"라고 법어를 내렸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4월 1일부터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강의 및 법문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계종 3급 승가고시 지나친 응시자격 확대

'승가교육 체계' 붕괴 우려

승가고시법 시행령 개정안 점검

6월 19일 열린 조계종 종무회의에서 통과된 '승가고시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승가고시법 기본 취지뿐만 아니라 승가교육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보완책을 점검했다.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개정안에 따르면 9명의 고시위원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이전에는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무원장이 위촉했다.

개정안은 또 제6조 2를 신설해 3급 승가고시의 구체적인 응시자격을 정했다. 승가고시법 제9조 제3호 가목에서는 선원에서 4안거를 이수한 뒤 △전문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 전문과정 2년 졸업 △전문선원에서 4안거 이상 성만 △석사 학위 취득 △교육원장이 인정한 특수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특수교육을 이수 △교육원장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나목에서는 △종립 승가대학원을 졸업한 자 △특수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공식기관이나 기능 보유자에게 연구나 기능연마를 3년 이상 계속한 자 △전문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에서 전문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을 졸업한 자도 3급 승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목에서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및 말사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어느 하나의 소임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재직하면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 어느 하나의 소임이란 △군승 등 총무원장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상근 임명직 △종단, 교구본사, 말사, 종립학교에서 설립한 법인격 단체의 상근 임명직(교법사 포함) △포교원장이 인정한 포교단체, 신도단체의 상근 임명직 △지방 종무기관(교구본사와 말사)에서 임명한 상근 임명직(교육교역자, 총무, 기획, 재무, 포교, 교무, 사회, 호법, 회계, 원주, 노전(부전, 기도법사), 사보편집장, 상임포교사(상근직 지도법사), 종무(과장) 소임 등) 등을 일컫는다.

가, 나, 다목 응시 자격자는 해당직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만 인정된다. 또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승려 자질 향상 대책 보완 필요

대중 '방함록' 작성도 고려할 만

▲무엇이 문제인가?=개정된 승가고시법 시행령은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응시자격을 너무 확대해 3급 승가고시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말사에서 노전만 4년 이상해도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럴 경우 승가고시법 기본목적 중 하나인 '승려 자질 향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승가고시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종헌 제12조에 의해 교육 및 법계승서에 따른 고시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해 승려의 자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노전 소임 등이 승려 자질 향상과 관계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은사와 제자, 사형과 사제 사이에서 엄격한 잣대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증빙서류가 가짜라고 해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시행될 경우 선원에도 안 가본 스님이 일선사찰 주지를 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좌도 둘 수 있다. 간화선을 종지종풍으로 하고 있는 조계종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여기에 구족계를 수지한 뒤 다시 강원이나 동국대,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스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보완책은?=조계종은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 때부터 승려 자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이는 승려 자질을 향상해야 다종교 사회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선 첫째, 다목 중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3급 승가고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둘째, 일반 대중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방함록〉을 작성해 DB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단 이 방안은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

셋째, 3급 승가고시 시험을 강화해 일종의 거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고시위원장 법산 스님은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본말사는 해당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비하고 이를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총무원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행령을 따로 만들어 대중방함록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해외 사이트' 운영키로

태고종은 6월 2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종무원 회의실에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 · 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열고 해외포교활동 강화를 위해 종단 해외사이트(www.taego.at)를 운영키로 결의했다.

또 총무원과 종무원간에 유기적 협조 관계 강화를 위해 시 · 도교구 종무원별 순방을 실시하고, 중앙승가전문강원 운영과 관련 월요일 오후 6시, 화요일 오후 2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본말사 주지연수 현장에 민원실

조계종 총무원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본말사 주지연수에서 현장 민원실을 시범 운영한다.

민원실에서는 승적기재사항 변경이나 사찰등록사항 변경 및 정정에 대해 상담하고, 승적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또 사찰 재산과 관련한 민원도 상담한다. 민원실에는 총무국장, 팀장, 사찰교무팀원 2명이 상주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 조계종 창종 선포법회

한국불교 조계종이 7월 7일 오전 10시 인천시 오류동 보현선원에서 창종선포 대법회를 개최한다.

초대종정은 6월 18일 열반 100재를 지낸 향엄당 설산 스님. 한국불교 조계종은 창종 선포후 제2대 종정을 추대할 방침이다.

초대 총무원장 보현 스님(보현선원장, 재단법인 한국불교중흥교원 이사장)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로서 제도권 내에서 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며 "창종후 새로운 불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현 스님은 1961년 문경 대승사에서 의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송광사 강원 사교과 대교과를 졸업하고, 마곡사 신흥사 대흥사 동화사 교무국장과 조계종 9.10대 중앙종회의원, 봉정암 홍련암 유가사 주지를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인물經 세상鏡

B포교사의 다짐

B포교사는 마음이 허전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인문계고교 교사인 B포교사는 학생들이 기말고사 준비에 여념 없는 동안 '또 한 학기가 지나 간다'는 사실에 가슴 한 켠의 공허함을 느낀다.

5년 전 그는 학교에 불교 동아리를 만들었었다.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한 불교 동아리였지만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50여 명이 함께 법회를 보고 사찰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는 등 신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힘은 오래 가지 않았다.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속수무책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읍 단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시간이 많은 것은 결코 아니다. 입시에 대한 압박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의 걱정과 조바심도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다.

여기에다 교내 활동을 위한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불교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B포교사 나름대로 '악전고투' 했지만, 떠나가는 학생들의 마음을 잡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B포교사는 공부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성을 맑게 해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불교 동아리야말로 최고가 될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과 청소년 포교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체계가 전무한 현실에서 불교 동아리를 활성화시킬 묘안은 아무리 궁리해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동아리가 없어지는 걸 지켜볼 순 없다." B포교사는 우선 학교에서 맡은 보직을 내놓을 생각이다. 학급의 담임을 맡아 학생들과 한 겹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날 생각이다. 또 동료 포교사들에게 학교에서의 전법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물어 볼 생각이다.

여름 방학동안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새 학기에는 불교 동아리에서 신나는 목탁소리가 나도록 할 각오다. **임연태 기자**

봉 재단법인 한국불교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창종 대법회 축

초대종정 향엄 설산 대종사

불교가 있는 곳에는 자유와 평화요 행복입니다.
불교가 새롭게 거듭나고자 창종대법회를 통해 인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성스럽게 시작합니다.
대덕 큰 스님들과 지역 유지분들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 역사적인 21C창종대법회를 봉행하오니 자리를 빛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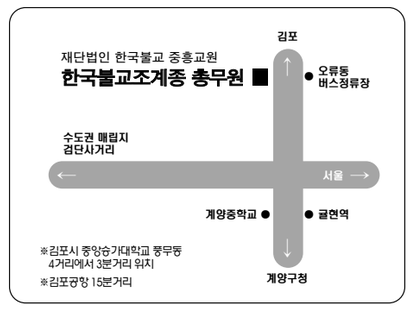
▣일시 : 불기 2551년 7월 7일 (음 5.23일) 토요일 오전10시
▣장소 :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문의 : 전화 032)518-1588, 032)554-1080 전송 032)554-1006

총무원장 보현
총무원 부원장 현철
중앙종회의장 덕산
중앙종회수석부의장 토불
포교원장 오봉
교육원장 보명
호계원장 지방
문화원장 효성
총무부장 범해
교무부장 정담
재무부장 진송
사회부장 윤봉
호법부장 도정
감찰부장 진경
문화부장 상운

서울교구 총무원 직할

부산교구 종무원장 정담
대구교구 종무원장 덕운
대전교구 종무원장 도정
인천교구 종무원장 묵담
강원교구 종무원장 동법
제주교구 종무원장 만우
해외교구 종무원장 짐바
경기교구 종무원장 범해
경남교구 종무원장 윤봉
경북교구 종무원장 토불
전남교구 종무원장 일조
전북교구 종무원장 만공
충남교구 종무원장 형주
충북교구 종무원장 경담

증명 각 종단 종정 예하
동성큰스님, 영공큰스님
경우큰스님, 우각큰스님
봉주큰스님, 법해큰스님
가산큰스님



재단법인 한국불교 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서 보 현 합장

"태허 스님 발자취 찾아 가요"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 항일 사적지 탐방 행사 개최

(사)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는 대학생 50명을 선발, 오는 8월 6일부터 15일까지 태허 스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중국 상해를 비롯해 남경, 무한, 광주, 유주, 계림, 중경, 북경 등 8개 도시를 순례한다.

이를 위해 사업회는 오는 30일까지 사업회 홈페이지(www.kimsungsuk.or.kr)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응모 대상은 전국 4년제 및 2년제 대학생으로,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해 · 남경 등 8개 도시 순례
항일 투쟁 관련 토론회도 마련

탐방단원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중국 상해의 독립운동가 묘역인 송경령능원을 시작으로 △임시정부청사 △한국대일전선통일연맹결성회의장소 △홍구공원 △조선의용대 창설장소 △황포군관학교 △조선의용대 전투지 △광복군 제 1지대 본부 △민족혁명당 거점지 △임시정부 항일활동 투쟁 전시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중국 북경대와 중산대를 방문해 중국 대학생들과 항일투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항일 애국지사 후손들과의 만남의 장도 마련된다.

민성진 사무국장은 "이번 탐방은 단순히 유적지만 둘러보는 순례 목적을 넘어 현지 대학생들 및 애국지사 후손들과 심도 깊은 대화도 나누며 선열들의 발자취를 몸소 체험하게 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 391-9100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재정 자립화 · 내실화로 경쟁력 강화"

interview

성낙승 금강대 총장



"학교 자립 기반 모색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2월 8일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총장에 선임된 성낙승씨(前 불교방송 사장). 성 총장은 "취임한지 100여일을 넘기고 보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눈에 들어온다"며 "학교의 특색인 '장학금 100% 지급, 기숙사 전액 무료'라는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이를 위해 △대학원 설립 △학과증설 △장학금 제도 개선 △재정후원회 구축 △학교의 수익창출방안 마련 등을 구상중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소감은?

금강대학교 총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가슴에 엄습해 옴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4년간 금강대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노출되고 생성된 장단점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개선 보완하여 신뢰와 협력과 화합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애교심이 더욱 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중 본격적으로 금강대학교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정직한 '심부름꾼'으로 봉사하겠다.

△한동안 외부와 단절된 활동을 하셨는데….

취임 후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하다보니 외부에 나오는 것을 꺼리게 됐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

제2의 도약 위해 정직한 '심부름꾼'으로 봉사
임기 중 특수대학원 설립…종단의 협조있길

△금강대 운영기조는?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교류교육을 강화하여 '국제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공동체봉사교육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필요한 리더를 양성'하는 등으로 생존 전략적 차원의 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특히 행정실습 특강을 마련해 예절부터 각 분야 실무를 습득토록 교육할 방침이다.

△가장 큰 현안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 중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금강대학교가 예산의 100%를 종단에 의존한다는 점은 큰 단점이다. 이를 위해 근검절약을 통한 운용의 효율성을 확립하여 알찬 내실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며 학교 재정의 안전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재정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수대학원을 임기 중에 설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교계와 종단에 바람이 있다면?

교계와 종단, 재단, 교수 교직원 학생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이 전제되었을 때 금강대학교는 제2의 도약이 성공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받들어 사심 없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서산 가야산 "보존 가치높다"

불교환경연대 사찰생태연구소 보고서 발표

"서산 가야산 일대 지역의 생태환경보존 가치는 높다"

송전탑과 순환도로 건설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서산 가야산 일대 지역 생태 조사 결과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가야산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사찰생태연구소(소장 김재일)와 공동으로 환경전문가 10여명으로 생태조사팀을 구성, 지난 5월 19 · 20일 양일간 가야산 개발지역 일대를 생태조사한 후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야산 일대에는 소사나무, 할미밀망, 버들희나무 등 생물종 유전자원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한국 특산종'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일 기자



6 · 15 남북 합동법회 평양 광법사서 봉행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6.15 남측위원회 명예대표인 지관 스님과 광법사 주지 법봉 심상진 스님 등 남북 불교계 인사 40여 명은 6월 16일 평양 광법사에서 합동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물과 기름은 겉돌지만 남북은 물과 우유가 합하듯 하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봉 스님도 "광법사는 고려의 기상이 어려 있는 사찰"이라며 "이번 법회를 계기로 남북의 불심을 합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광법사는 고려시대 사찰로 터만 남은 것을 북한이 1980년대 복원했으며, 최근에는 조계종이 안료 등을 지원해 단청을 새로 입혔다. 한편 남한 불교계 인사들은 광법사 법회에 앞서 조선불교도연맹을 방문해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유태근 · 김동훈씨 선정
제6회 불교활동가 지원대상



불교활동가지원기금(운영자 동출 설법연구원 원장)은 6월 20일 제 6회 불교활동가지원대상 수상자로 선재학교 유태근 교장(사진 왼쪽)과 지구촌공생회 김동훈 기획과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명인 유지선 법사로 더 잘 알려진 유교장은 현재 선재학교 교장, 선재마을 지도법사, 청소년 지도사로 활동하며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뽑혔다.

김동훈 과장도 불교시민운동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제구호사업의 새 영역을 개척하는데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일 기자**

우리 기술에 감탄한 홍콩불교

성종사, 홍콩반환 10주년 기념종 제작



홍콩 반환 1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기념종(사진)이 우리의 기술로 제작됐다.

이 범종은 오는 7월 1일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홍콩 반환 기념식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중국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해 홍콩 주요 인사들이 타종할 예정이다.

지난 1월 홍콩불교연합회 임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발주한 이 범종은 성종사에서 5개월간의 작업 기간을 거쳐 완성됐으며, 그 중심에는 인간문화재 제112호 원광식 종장(성종사 대표)이 있었다.

원 종장은 "특별한 의미로 사용될 이 범종은 지난해 특허를 획득한 정밀주조공법을 사용해 제작됐다"며 "한국범종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정우 스님, 원송 정사, 김규칠씨 선출

불교방송 신임 이사 선출

불교방송(사장 홍승기)은 6월 19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62차 재단이사회를 열어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원송 정사, 김규칠 前 불교방송 사장을 신임 이사로 각각 선출했다.

재단이사회는 또 이달말 임기가 만료되는 배홍규 감사의 임기를 2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사장 선임 문제는 7월에 열리는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불교방송은 올해 3월 이사 임기가 만료된 종하 스님의 이사장 연임 건을 결의하지 못해 상임이사인 영담 스님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불교방송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불교종합미디어센터에 대한 진행 과정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 영담 스님을 비롯해 종범 스님, 도후 스님, 법조 스님, 회정 정사, 무외 정사, 우승 정사, 홍승희 이사, 민병천 이사, 명호근 이사, 손현수 이사, 구형선 이사, 홍승기 이사 등 총 18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문화재수리기술'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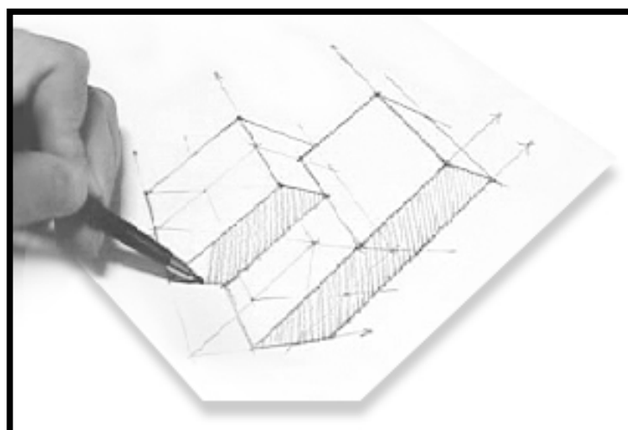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자월)이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대비해 7월 2~ 31일(5주) 매주 월 ·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문화재수리기술' 특강을 개설한다.

재학생 및 동문,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대비 특강은△건축사(심대섭, 대원고건축연구소장) △문양사(임영주, 문화재전문위원) △색채학 및 도학(김희정, 문화재단청기술자)등의 전반에 대한 집중강의를 통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예상되는 시험내용을 집중점검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높은 합격률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모집기간은 6월 29일까지이다. (02)745-2030 **김원우 기자**





불광사 신축건물 디자인 공모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에서는 현대건축과 고건축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도심포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종교건축물로서 이 시대를 대표 할 수 있는 신축건물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1. 공 모 명 불광사 신축 건물 디자인 공모

2.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번지. 160-8번지

3. 부지면적 2112㎡(639평)

4. 용 적 율 250%

5. 건 폐 율 50%

- 건축규모
  - 연면적 : 지하4층 지상 5층
  - 건물디자인 대상 : 지상 5층 - 연면적 5,279㎡ (1,597평)
  - 주요시설 : 법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사무실등

6. 응모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자
- 현대건축과 고건축(문화재)을 병행하는 건축사 사무소
- 최근 10년 이내 도심 종교건축 또는 문화시설건축 설계실적이 있는업체 우대

7. 공모신청 서류및 신청기간

- 건물디자인 응모 신청서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 종교건축 또는 문화시설건축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제출
- 건물디자인 응모 신청 기간 : 07. 6. 25. ~ 07. 7. 6. 17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 팩스, 직접제출

8. 건물디자인 작품 제출

- **2007년 7월 1일 ~ 2007년 8월 31일 17시까지**
- 접 수 처 : 불광사 불사추진위원회 사무국

9. 건물디자인 제출물

- 컬러투시도 A1 규격 패널 부착 1부
- 컬러투시도 A3 2부
- 건물디자인 설명서 1부(A4)

10. 당선작 발표 2007년 9월 중(당선작만 개별 통보 함)

- 당선작 1점 : 1000만원 또는 실시설계권부여
- 우수작 1점 : 500만원
- 가 작 3점 : 200만원
- 특선 및 입선(다수) : 100만원

11. 심사방법 내부 심사위원 평가 또는 불사추진위원회 평가

12.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에 따른 별도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합니다.
- 본 건축디자인 공모에 대한 문의사항은 불사추진위원회 사무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413-6060, 420-7351 / 팩스 02)417-2552
  홈페이지 http://www.bulkwangsa.org
- 공모된 건물디자인 안의 결정은 본 사찰의 불사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단 당선작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내,외 기 발표된 작품 또는 다른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응모작은 수상이후에도 무효처리 됩니다.

(상기 공모요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야산 관리 놓고 갈등 심화

해인사, 생태계 훼손 우려 남산제일봉 등 등산로 폐쇄
국립공원관리공단 "성역화 위한 시설물 설치 불법"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지난 4월 국립공원내 남산제일봉 2개 등산로 중 매화산 청량사 쪽 폐쇄에 이어 15일부터 해인사 관광호텔쪽도 느슨하게 막고 있는데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과 해인사가 맞고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19일 교계 및 지역 환경단체 간담회를 통해 "가야산은 명승지역이며 불교계의 성지인데도 불구하고 등산객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며 "가야산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해인사의 할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현응 스님은 "정부에서 지난 7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당시 가야산 일대는 관련법상 자연보전지역이며 사적 및 명승지로 지정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공원의 자연환경을 잘 관리해 줄 것을 믿고 해인사는 공단에 토지사용을 승낙했다"며 "하지만 공단은 오히려 등산객을 많이 불러들이는 정책으로 직무유기를 했고 이로 인해 가야산 일대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고 전통사찰의 풍치를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한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자구책"이라고 덧붙였다.


해인사와 공단이 폐쇄조치를 두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해인사 관광호텔쪽 등산로.

이에 대해 가야산 관리사무소 장준열 자원보전팀장은 "가야산 성역화를 위해 일부 법정 탐방로에 불법 시설물인 철조망을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특별보호구로 지정되려면 공단과 해인사, 지역환경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동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발 취하는 철조망만 없애면 언제든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문창식 대구환경련 운영위원장은 "남산제일봉 정상 부근에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금마타리와 흰잠꽃 등이 자라고 있다"며 "가야산은 1972년 10월 국립공원 9호로 지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지 않아 즉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탐방예약제 도입 △입장객 수 제한 △자연휴식년제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공단은 우선 출입금지를 해제한 후 등산로 복구를 위한 공동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인사는 공단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지닌 상태여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해인사는 또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올 1월 이후에 등산객이 더욱 늘어나는 데도 무분별한 등산로 이용을 공단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대형화재까지 우려됨에 따라 3~5년 동안의 출입금지를 통해 남산제일봉 일대에 자연휴식기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천=하성미 기자

제주 '관음사 사태' 해결 비구니 주지스님 팔 걷어

제주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종무행정 소식지를 통해 "종무행정의 조속한 인수를 위해 말사 비구니 주지스님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소식지에 따르면, 6월 16일 제주 제석사 대웅전에서 열린 말사주지스님 간담회에 관음사 주직무대행 시몽 스님과 7직 스님, 말사주지스님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관음사 인수를 위한 비구니 주지스님들의 적극 동참뿐만 아니라 각 사찰에서도 현 사태에 대한 신도들의 올바른 이해와 행동을 위해 설명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임시종무소는 주지직무대행스님 및 소임자 스님을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재가자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6월 11일 각각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관음사 경내 찻집(산소리)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해지 최후 통고를 했다. 남동우 기자



부산 광명사 교량 건립 반대 시위
"수행공간 침범·자연훼손" 반발

6월 19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부산 광명사 신도회 80여명은 법회를 열고 '수행공간을 침범하고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교량건립 반대 시위'를 열었다. (사진)

광명사(주지 무아)는 "전통사찰 광명사의 뒷산인 팔금산 허리를 자르는 교량 건설은 심각한 자연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행환경을 파괴하고 전통사찰보존가치를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 부산 진구청은 "애림복지재단에게 조치계획서를 받으면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물의를 빚은 이 교량은 사회복지법인 애림이 노인복지시설 증축을 위해 높이 11m, 넓이 6m로 주변 완충녹지를 피해 광명사 법당과 용왕단 사이를 가로질러 건립될 예정이다. 부산=하성미 기자

"장기이식 인식 바꿔야"
생명나눔실천본부 세미나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7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장기이식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복자 사무총장은 "국내의 부족한 장기기증 현실을 알리고 뇌사 시 장기 및 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이명묵 동국대 일산병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송철 교수(서울 아산병원 일반외과)가 '장기기증과 이식의 현황'을, 심성보 교수(가톨릭대의대 흉부외과)가 '조직기능과 이식의 현황'을 각각 발표한다. 또한 신현호 변호사가 장기기증의 법률적 측면을, 최승주 한마음혈액원 대외협력국장이 정책적 측면을 살펴본다. 여수령 기자

해외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클릭만 하면 '한눈에'

해외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불상과 불화 등의 한국 문화재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6월 18일 웹사이트 '해외소재 문화재자료 정보관(http://overseas.nricp.go.kr)'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이트에는 해외박물관에 소장된 한국문화재 3만4000여 점이 실려 있으며 키워드 · 항목별 검색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해당 문화재를 찾아볼 수 있다.

단, 현재까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현지조사하고 보고서로 발간한 문화재 중 소장처의 협의를 거친 4000여 점에 한해 일반에 공개된다.

사이트에서는 가상체험관을 두어 문화재 줌인 줌아웃을 통해 마치 실물을 보는 것처럼 감상할 수 있게 했으며, 해외소재 문화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존처리 지원현황 소개와 해외박물관 및 관련 사이트 소개도 제공된다. 여수령 기자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삼국시대 금동반가사유보살상.

다양한 茶용품 한자리서 본다
'티월드 페스티벌' 개최

서울 도심 속에 차밭이 꾸려진다.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인도양홀에서 열리는 '티월드 페스티벌 2007'에서는 특별 행사로 도심 한가운데 차밭을 조성해 녹색의 싱그러움을 더할 예정이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140여 개 업체와 해외 8개국 30여 업체가 참가해 차 재료와 차 생활용품, 공예품, 포장기기는 물론 차 관련 교육단체와 판매업체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불광사는 29일 오후 1시에 '일완다례'를, 조계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꽃이 피기까지'를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출판 기념 사인회도 잇달아 열린다. <찻물기행>을 출간한 혜우 스님(혜우전통덖음차제다교육장)은 29일 낮 12시에, <한국차문화사>의 저자 류건집 교수(원광디지털대 석좌교수)는 30일 12일에 각각 사인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보성군과 함께하는 녹차음식 경연대회, 원광디지털대학교 차품평 심포지엄, 차생산자연합회의 심평대회 등의 특별행사도 마련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02)6000-8000 여수령 기자

삼광사 왕생극락전 상량식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는 6월 15일 삼광사 극락전 앞 마당에서 상량식을 봉행했다.

삼광사 왕생극락전은 연건평 660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전통양식으로 현재 약50%의 시공이 완료됐다. 상량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정산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천태종 대덕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각 기관장 외 5000여명이 참석해 성대히 봉행됐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자비원 대표이사 정우 스님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은 지난 6월 14일 이사회에 참석한 7명 이사의 만장일치로 새 대표이사에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을 추대했다.

이날 정우 스님은 "전임대표이사의 명맥을 이어받아 법인 설립 17년째인 통도사 자비원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몇년 안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으로 양성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짐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4차 세미나 개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과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6월 30일 오전 9시 봉은사 보우당에서 제4차 '불교와 상담 워크숍'을 개최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그간 비공개로 진행되던 워크숍을 일반에게도 공개하기로 하고, 선착순 150명을 모집해 참석하도록 했다. 워크숍에는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 100여 명이 이미 참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재승 원장(이재승정신과)이 '정신치료의 실제'를, 인경 스님(명상상담연구원장)이 '불교명상과 명상치료'를 각각 발표한다.(02)737-7378 여수령 기자

내달 12일 해남 대흥사 주지 선출

해남 대흥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7월 12일 오후 1시 대흥사 보현전에서 개최된다.

입후보자 자격은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대덕 이상의 스님으로 종무원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입후보를 원하는 스님은 7월 2일 오전 9시부터 4일 오후 5시까지 △등록신청서 △수행이력서 △호적등본2부 △사진(반명함판) 5매 등을 첨부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인, 061-534-5502)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이주 노동자 무료진료 서비스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연우야(단장 구자선)는 7월 1일 화계사 교육관에서 외국인 스님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1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화계사 국제선원의 외국인 스님을 대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내과 · 안과 · 치과 진료를 펼친다. 또한 한방진료와 발마사지와 지압 등의 치료법도 병행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살필 예정이다. 반갑다연우야 관계자 "이주노동자들이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진료를 받기가 쉽지 않아 무료 이동 진료를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02)733-7277 여수령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4일개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1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서성운스님(삼천사주지) · 김형준 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감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7년 6월 15일~ 2007년 7월 31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7년 8월 4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제 25기 불교전문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는 내가 죽음에 직면하도록 돕는데 만족을 느끼며, 나의 요구를 이해하는, 민감하고 지각있는 사람에 의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호스피스 윤리 중에서-

■ 일 정 : 2007년 8월 4일(토요일) ~ 2007년 8월 11일(토요일)
■ 내 용 : 30개 호스피스 전문과목과 20여명의 최고 강사진. 임상과 이론을 겸한 전문인력양성 집중교육
■ 장 소 : 관자재병원 교육원 마하보디센터(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 대 상 : - 스님, 재가 법사 및 포교사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분
- 불교인으로서 삼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인 원 : 남 · 여 60명
■ 교 육 비 : 39만원(학인스님 20%할인 - 재학증명서 제출)
■ 원서접수 : 홈페이지 접수, 전화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접수받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육생 선발은 1차 서류 심사후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원서마감 : 2007년 7월 10일 도착분까지
■ 문 의 처 : 정토마을 호스피스[[법인사무국]]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1 정토마을
TEL 043)298-2258(代)
FAX 034)298-1457
관자재요양병원 사무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TEL 052)264-1007(代)
FAX 052)264-0209

※ 불교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각계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불교의료복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첨단 시설을 갖춘 관자재병원 교육원 마하보디센터가 새롭게 개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http://jungtoh.com / 이메일 jongtoh2@jungtoh.com
다음카페 불교호스피스연합 http://cafe.daum.net/BHU

정토마을 bc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호스피스는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나무 심고 꽃 심고 한 동아리로 살아요”


수덕사 사하촌에는 54개의 상가를 기반으로 400여 주민이 살고 있다.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⑰ 덕숭산 수덕사

8년전 절 입구 정리 현재 54개 상가에 400여 명 살아
관광객 유치 위한 차별화 전략 절·마을 공동 노력
사찰 주변 개발로 인한 수행환경 파괴 문제 고민

수덕사 대웅전은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오래된 건축물이다. 오랜 세월 불자들의 마음 도량이 되었던 탓에 대웅전 기둥의 터진 자국들은 혈관처럼 도드라져 있다. 법화삼매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다.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전각으로 석가모니를 위대한 영웅으로 일컫는데서 유래했다. 주존불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봉안하였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이며 정갈하게 만든 장대석으로 높은 기단을 만들어 덤벙주초를 사용하였다. 대웅전은 고려시대 작품이지만 백제의 기술적 토양 위에 만들어진 걸작이라고 알려져 있다. 영남지방의 직선적인 구조미와는 달리 곡선미를 지니고 있어서 아름다운 절집이다.

덕숭산 자락에 안겨 있는 수덕사는 조계종 7교구 본사이며 5개의 총림 중 덕숭총림이다. 총림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덕사에는 공부하는 스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산문입구 소나무들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듯하다. 대개 고찰들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설화 하나쯤 지니고 있게 마련인데, 수덕사에도 수덕도령과 덕숭낭자의 아련한 사랑이야기가 배어 있다. 덕숭낭자는 수덕도령의 청혼을 받아 주는 대신 비명에 돌아가신 어버이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큰 절을 하나 세워 줄 것을 당부했다. 수덕도령은 수행을 하듯 절을 완성하지만 자꾸 불타버리고 만다. 낭자에 대한 애틋함으로 불사를 하여 끝내 절이 완성되었다. 촛불을 사이에 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둘이 앉았는데, 낭자가 잠자리만은 따로 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수덕도령이 끌어 오르는 열정을 어쩌지 못하여 낭자를 끌어안는 순간 돌풍이 일며 낭자는 사라지고 두 손에 버선 한 짝만이 남겨져 있었다. 그때서야 도령은 덕숭낭자가 관음의 화신임을 알게 되었고 낭자에 대한 애틋함을 기리기 위해 절 이름을 수덕사라 부르게 하였다.

그토록 안고 싶었던 덕숭낭자에게 수덕도령이 안겨 있는 형상이다.

수덕사를 찾아가는 길은 험한 산이 길을 막지도 않고 강물이 길을 나누지도 않는다. 온천으로 유명한 덕산을 지나 구릉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덕숭산 품에 수덕사가 안겨 있다. 사하촌은 54개 상가로 형성되어 약 400여명 마을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 살고 있다. 대부분 절집 입구에서 노점상을 하며 살았는데 8년 전에 상가가 조성되어 깔끔한 환경으로 변했다. 뻐꾸기 둥지를 튼 셈인데, 절집 땅에 새로 집을 지은 것이다. 절집과 마을 주민들이 협의해서 해마다 도지를 올려 주고 산다.

사하촌에서 불교가 융성해지는 것 같아 참 좋다고 말하는 홍순목 이장님을 만났다. 큰아버지가 대처승이라 불가와 인연이 깊은 삶을 살았다며 지난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렸을 때 절집에 가면 쌀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절집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라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쌀밥을 먹여 주며 으스대고 했지요. 부처님의 인연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절집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장님은 젊은 날 수덕사 대웅전 마당에서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면서 삼남매를 가르치고 먹고 살았다. 옛날에는 수덕사 입구에 우람한 벚나무들이 꽃을 피워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 주었단다.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오래된 나무들이 하나둘 없어져 그 풍광이 사라져 아쉽다고 했다. 개인용 카메라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사진을 찍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진사는 웬만한 월급쟁이 보다 수입이 좋았단다. 관광객들 추억을 박제해 주며 생긴 일화들을 떠올리더니 그는 옛날로 돌아갔다. “사진을 찍고 현상하여 우편으로 보내는데 한 달이 걸렸지요. 오랜 친구들과 여행을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배달되지 않아 사기당한 줄 알았다며 엽서를 보내온 사람도 있었어요. 기다림이 필요한 시절이었지요.”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아 장사가 잘 되어 사하촌 재미도 쏠쏠했단다. 가게마다 종업원을 두엇 두고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식구들끼리 장사를 해도 바쁠 일이 없다고 했다.

사하촌이 발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하는 김용식 개발위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리 마을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어서 장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요.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쉴거리 볼거리 먹거리 개발을 위해 주민들과 사찰이 노력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해 특별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는 못하나 수덕사 조경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촌사람들 의식이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사고로 전환되면서 전 국토가 공원화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7년 전 수덕사 아랫마을에도 개발바람이 불어 절집과 사하촌이 갈등을 겪었다. 절집 땅을 빌어 집을 짓고 살던 몇몇 사람들이 정부의 사하촌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절집에게 땅을 팔 것을 요청했다. 결국 조계종과 대립을 하게 된 셈이다. 지금도 그 앙금이 남아 있어 절집과 사하촌의 관계가 서먹하다고 말하는 개발위원장님은 지나친 대립이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개발을 위해 건의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립을 해서는 발전이 없기 때문에 공생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갈등으로 정답게 살던 마을 사람들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절집 편과 동네 편으로 나뉘었지요. 지금도 마음들이 껄끄럽지만 마을을 발전을 위해서 한동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하촌 사람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덕사가 있어서 사하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은 하되 고마움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래도 올 봄에는 수덕사와 사하촌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무도 심고 꽃도 심었습니다.”

수덕사를 비구니절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수덕사에는 국내 최초의 비구니 선방인 견성암과 환희대가 산내 암자로 있을 뿐 비구니 절은 아니다. 일엽 스님이 머물렀던 곳이라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웬지 수덕사에서는 잃어버린 사랑 하나쯤은 기억해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일엽 스님의 사랑과 수덕여관의 이응로 화백의 사랑과 수덕도령의 사랑이 혼재해 있기 때문일까.

예산=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일주문과 맞붙어있는 사하촌.


수덕사 전경.


대웅전 뒷편의 관음보살상.

불교건축사 김현수 선생

독학으로 불교조각 터득
동명불원의 나한전 등 작품



절집으로 오르는 길 옆 독특한 집에서 수덕사 불교건축사 김현수 선생(문화재기능등록 제758호 · 사진)을 만났다. 그가 일주일 만에 완성한 집이라는데 해거름에 깃들고 싶은 집이었다. 실내에는 혼을 불어 넣어 조각하고 있는 불상들이 여기 저기 놓여 있었다.

서둘러 산을 넘어가는 해처럼 조각을 하게 된 배경을 묻자 소탈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섬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있어 부산으로 갔습니다. 세상살이는 부처님의 인연법에 얽혀 있다는 말처럼 나에게는 좋은 인연들이 인생길에 서 있었지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부산에서 민명기씨를 만나게 된 것이 내가 조각가로 살아가게 된 배경입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공예품을 싹쓸이 해가던 시절이라 깎기만 하면 돈이 되었어요. 목조각 팀장은 내 솜씨를 보고 자기집에 와서 기술도 배우고 학교를 다니도록 편의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술 배우는 것이 절실해서 남들은 다 놀러 나가도 작업실에서 지칠 때까지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는 인생은 혼자 터득하며 사는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스스로 문화재를 연구하면서 불교조각을 터득하고 불상에 대한 개념도 책을 보며 공부했다. 또 다른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은 부산 동명불원을 지은 강석진 씨를 만난 것이다. 동명불원의 산신각 나한전 관음전 사천왕상 등이 그의 젊은 날 솜씨다. 미술학원을 하다가 불이나 빈털터리가 된 그는 방황을 했고, 수덕사에서 김기태 선생을 만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절집을 짓고 불상을 깎으며 살고 있다. 그의 최후의 바람은 죽기 전에 출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란다. 걸림 없이 살고 싶어서라며 바람 같은 말을 뱉어 놓았다.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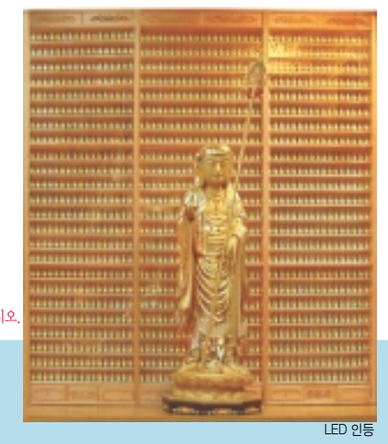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영가주름등 · 영가접등 · 영가공단등


LED 인등

영구위패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종등 · 팔각봉축접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 청사초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일주문



전몰장병 지장기도 회향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은 6월 25일 '순국선열 육해공군 전몰장병 순직경관 호국영령 및 선망부모 천도 49일간 지장기도' 회향대법회를 봉행했다.



남북 결식아동 후원행사 개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법타 스님**은 6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 15돌을 맞아 남북한 결식아동지원을 위한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지장 기도 · 고승대법회 개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7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지장 100일 기도 및 고승대법회'를 개최한다. (051)508-3636



복지재단 설립 9주년 기념법회

진각복지재단 이사장 **회정 정사**는 6월 29일 진각종 종인원 야외잔디밭에서 법인설립 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2)942-0144



어르신 돕기 일일 찻집 행사

대구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6월 27일 관음사 공양간에서 '참 좋은 인연-홀로 어르신 돕기 일일찻집'을 개최한다.(053)474-8228



6·25참전 호국 영령 위령제

단양 금수사 주지 **혜광 스님**은 6월 23일 금수사 경내에서 '6 · 25 참전 호국 영령 위령재 및 유공자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금강경 육조해' 출판기념법회

부산 화명선원장 **무거 스님**은 6월 15일 화명선원 대법당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경 육조해> 출판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옥천사암연 제4대 회장 선임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6월 20일 열린 옥천불교사암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화첩 발간 기념 작품전 개최

선묵화가 **김창배 화백**은 <세상의 모든 달마> 화첩 발간을 기념해 7월 1~31일 인사동 중앙미술관에서 작품전을 개최한다.(02)736-7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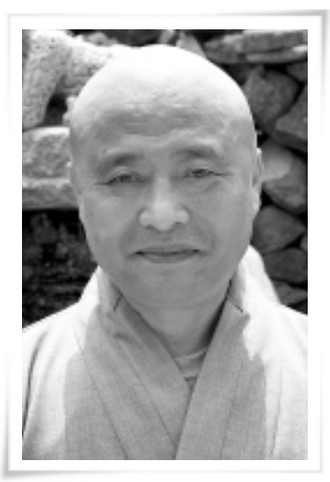


생명나눔에 강연료 기탁

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 **우승택 센터장**은 6월 18일 천안 보명사 '53선지식 초청대법회' 강연료 150만원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 기탁했다.

"돈은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죠"

동국대·중앙승가대·불교 TV에 1억원씩 기부한 부산 영일암 현응 스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은 생명을 잇는 간절함이지만, 물에 빠져 고생한 사람에게는 원수와 같습니다. 돈이란 것도 마찬가지지요.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일 때 돈의 가치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불교TV에 각각 1억씩을 기부한 부산 영일암 주지 현응 스님(사진)을 6월 20일 만났다. 기자와의 인터뷰를 한사코 거부하던 현응 스님은 "큰스님들께 누가 될까 걱정"이라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영일암 주변이 관광단지로 조성되면서 지급된 보상금의 바른 회향처를 고심했다"며 "건물불사 보다는 불교의 과제인 인재양성, 포교 그리고 복지에 모두 회향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회향의 계기를 설명했다.

현응 스님의 회향은 단지 관광단지 조성이란 갑작스러운 행운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15년 동안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해 인재불사에 힘을 보탰고 불우이웃돕기와 환자를 위한 치료비 등도 꾸준히 모금했다.

"학생들이 어렵게 찾아오는 것이 걱정돼 수여식도 하지 않아 얼굴도 연락처도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스님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정직 · 근면하게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25년 된 허름한 가사, 굵은 실로 엮은 고무신과 양말, 작은 책장 하나가 세간의 전부인 스님의 방은 3평 정도의 크기에 전기불도 잘 들어오지 않아 어둡다.

"제주도나 해외 성지순례도 한번 가본 적이 없다"는 스님은 "핸드폰, 자가용, 컴퓨터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것이 없어도 부처님의 가르침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며 활짝 웃었다.

법보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현응 스님은 "책은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너고 나면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책도 다 읽고 나면 간직할 필요가 없다"며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성장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쓰이면 된다"고 말했다.

"술에 취하면 깨어나지만 탐욕에 취하면 깨어나지 못한다"고 경계하는 스님은 "탐진치를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회향의 삶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 범패 · 작법무 익혀 의식시연 봉사활동 펼 것"

호국 영령위령제 참여 우영옥 보살



"조국을 위해 산하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데 그동안 익힌 영산재 의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인생을 회향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행을 펼치겠습니다."

현재 옥천범음대학 각배반에 재학 중인 우영옥(67, 보현행 · 사진) 보살이 지난 6월 3일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열린 호국영령위령제에 참여하면서 밝힌 각오다.

고희를 바라보는 적지 않은 나이에 우 씨가 범패를 배우기로 결심한 것은 5년 전. 만학은 오히려 우씨의 향학열을 북돋웠다. 양평 사나사 신도회 부회장이기도 한 우 씨는 옥천범음대학을 다니는 3년 동안 무려 왕복 4시간에 걸친 통학도 마다 않았다. 단 한 번도 수업에 빠진 적이 없었다.

"앞으로 열심히 불교의 범패와 작법무를 익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봉사단을 조직해 양로원과 실버타운, 군부대 등을 돌아다니며 불교의 전통 문화를 알릴 계획입니다."

김주일 기자



"양심·농어촌·희망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양심·농어촌·희망 셋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행림 스님

"양심 농어촌 희망을 살려야 합니다."

개신교 최웅호 목사, 가톨릭 황동국 신부와 2년간의 준비 끝에 '양심 · 농어촌 · 희망 셋 살리기운동본부'를 설립한 공동대표 행림 스님(김제 행림사 주지 · 사진).

스님은 최근 전주시 서서학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도 내걸었다. 오는 7월 1일에 친환경 무공해 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sagaks.codns.com:86/)도 개통할 예정이다.

인터넷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는 김치, 장아찌, 반찬, 김, 야채, 곡물, 조미료, 건강식품 등 총 145개 품목이 판매된다.

출가 전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스님은 "농촌에서 포교활동에 전념하다보니 농촌경제가 파탄일로에 있는 것은 정부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농민들이 양심적으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막힌데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일부 상인들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했음에도 유기농식품이라고 속여 소비자들이 농민을 불신하게 됐다"며 "시민운동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선정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 중소도시의 대형할인점 설립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스님은 "재래상인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 할인점은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농촌 살리기운동에 관심있는 사찰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63) 547-3378

김원우 기자

천태종,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 합창제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6월 17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종의회의장 도정, 세운 스님과 이형구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기열 원주시장, 이계진 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천태합창제'를 봉행했다. 합창제에는 천태종 연합합창단, 부루나 솔리스트 앙상블, 김영아 전통무용단 등이 출연했다.

김흥국씨, 승가원 홍보대사로 위촉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은 6월 18일 법인사무국 강당에서 불자가수 김흥국씨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씨는 "승가원 장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위촉식 후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을 방문해 장애아동들을 격려했다.

법주사, 탄성대종사 부도탑비 제막식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6월 20일 대웅보전에서 진공당 탄성대종사 7주기 다례재와 부도전 준공식 및 탄성대종사 부도탑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과 금오문도 운영위원장 월서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여원, 제9회 호국영령 추모제 개최



조계종 직할 포교원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21일 화명 신도시 내 제3근린공원에서 제9회 호국영령 추모식을 개최하고 보훈유가족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정각 스님은 "순국선열들이 뜨거운 조국애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 군사독재의 시련을 극복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슴에 새길 큰 교훈"이라고 말했다.

봉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축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淞澹 지음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이시며
동국대학교 불교 역경원장이시고 (生佛)이신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 모두가(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와 같다고(찬탄 하시였다)

신국판 |319쪽 | 값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

BBS 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전주여고 학생들은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애통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아픈 역사 잊지 않아야 새 역사 열려”

나눔의 집 할머니들 ‘전국 고등학교 순회 증언회’ 현장

교과서에 기록된 ‘잔혹한 역사’ 생생한 증언에 탄식 쏟아져
기억날까 질문도 조심…“평화로운 나라 만들어 달라” 당부



6월 20일 전주여고에서 열린 증언회에 참석한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

할머니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할머니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부르지만, 단 세 단어에 담기엔 할머니가 겪은 고통과 아픔은 너무도 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원장 원행)에 거주하고 있는 이옥선(81) 할머니.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지 58년 만에 고국을 찾은 이 할머니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부 피해 실상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이 생의 마지막 목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할머니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고등학교에서 열린 순회 증언회에 편치 않은 몸으로도 선뜻 참여하겠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6월 20일 전주여고에서 열린 증언회에 참석한 할머니는 700여 명 학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증언단에 올랐다. 길을 가다 느닷없이 붙잡혀 중국 연길로 끌려갔던 당시 할머니의 나이 열여섯.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저 학생들과 또래였다. 깊은 한숨을 타고 할머니의 증언이 시작됐다.

“난 1927년 부산 보수동에서 태어났어요. 6남매의 둘째였는데,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15살 무렵에 학교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우동집 식모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다시 울산의 술집으로 옮겨져 심부름을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길에서 군인들한테 붙잡혔어요.”

위안부로 강제동원된 뒤 전쟁이 끝나자 일본군들이 산에 버리고 가 간신히 목숨을 건진 할머니는 2000년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중국 연길에서 40여 년을 생활했다. 때문에 할머니의 우리말은 서툴렀고, 조선족말과 중국말이 섞여 억양은 들쑥날쑥했다. 학생들이 좀 더 귀를 쫑긋 세웠다.

“하염없이 트럭과 기차를 타고 갔는데, 난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수용소 같은 곳에 감혀 있다가 비행장 닦는 일도 했어요. 근데 내가 힘도 없고 자꾸 집에 보내달라고 항의하자 연길 서시장 위안소로 보내버렸어요. 나 말고도 여자애 열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위안부 생활이 시작된 거지.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어서 탈출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러다 번번이 붙잡혀서 엄청 맞았어요. (소매를 걷어 보이며) 팔목에 난 상처도 그때 일본군이 내리친 칼을 팔로 막아서 그래.”

“어머, 어떡해!” 여학생들의 탄식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자 할머니는 양말을 벗고 발가락을 보여준다. “이 상처도 다시 도망 못 치게 한다고 발가락을 칼로 찔러서 생긴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교과서에 기록된 ‘역사’가 바로 눈앞에 있다. 이렇게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왜 일본은 부정하는 것일까?

할머니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학생들 사이에선 서명 용지가 전해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하원에 전해질 서명이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 학생이 묻는다.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 안 하고 미국 국회에서 결의안을 만드는 거지?” 그 마음을 아는지 할머니가 대답한다.

“일본군이 패전 후 우리를 버리고 가서 난 중국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다 결혼도 했는데 임신은 할 수가 없었지. 1999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고 나니 고향 생각이 간절히 나더라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이미 사망신고를 했더군요. 부모님과 형제들은 죽고, 갈 데도 없었는데 다행히 나눔의집에 살게 됐어요.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놀랬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증언회도 열어주고 문제 해결하라는 법도 만들려고 하더라구요.”

할머니의 말씀대로 ‘거짓말’ 같은 증언이 끝나자 학생들 사이에선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의 지나온 생애와 아픔이 침묵 속에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듯 했다. 다음은 학생들과의 문답 시간. 처음엔 할머니의 옛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못내 미안해 질문을 하기가 머뭇거려진다. 하지만 한두 명의 학생이 질문을 시작하자 봇물 터지듯 궁금증이 쏟아졌다.

“생존해 계시는 할머니들이 몇 분이 되십니까?”

“전국에 한 100여 분 있지요. 그동안 많이 돌아가셨어. 살아 있는 사람도 80, 90살이 넘었지. 일본은 우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증언하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얼굴 내놓고 다니기 부끄럽지.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위안부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죽으면 누가 이 얘기를 하고, 또 누가 믿어주겠어요.”

2시간 동안 진행된 증언회가 끝나고, 전주여고에서 모금한 140여 만 원을 학생회장 조영(19)양이 할머니에게 전달했다. 손녀딸 같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마지막 당부를 한다.

“학교에선 선생님이 부모에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잘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지켜주세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전주/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전국 학생 서명 운동 펼치는 기예지양



“학생들이 직접 할머니를 만나고 이야기 듣는 기회를 통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동아리 시나브로의 회장을 맡고 있는 기예지(19 · 사진)양은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전국 8개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증언회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양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민사고에서 열린 할머니들의 증언회와 나눔의집 봉사활동을 통해서다. 할머니들의 아픔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의 심각성을 느낀 몇몇 학생들이 모여 봉사동아리 시나브로를 결성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이번 전국 고등학교 순회 증언회와 전시회, 서명운동이다.

“봉사활동 하며 관심 갖게 돼 수요집회도 함께 참가해요”

“증언을 들으며 함께 아파하고 눈물짓는 친구들을 보며 앞으로 더 열심히 위안부 문제를 알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는 기양은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도 참가하겠다”며 많은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5> 본지풍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참선하는 사람들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공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성품인 자신의 본바탕을[本地] 알면, 저절로 흘러넘치는 온갖 지혜[風光]로써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이다. 태양처럼 밝은 부처님의 지혜가 넘쳐흐르는 이런 자비심 없이 수행자가 고요한 선정에만 집착하여 그것이 공부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면 병이 깊은 것이다. <선가귀감> 75장에서 말한다.

禪學者 本地風光 若未發明則 孤峭玄關 擬從何透. 往往 斷滅空以爲禪 無記空以爲道 一切俱無以爲高見 此冥然頑空 受病幽矣. 今天下之言禪者 多坐在此病.

참선하는 이들이 본지풍광(本地風光)을 드러내지 못하면 높고 아득한 진리의 문을 어떻게 꿰뚫을 수 있겠느냐? 더러는 '단멸공(斷滅空)'을 선(禪)으로 삼기도 하고, '무기공(無記空)'을 도(道)로 삼기도 하며,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진 경계'를 높은 소견으로 삼기도 하니, 이들은 모두 깜깜한 경계에 집착하는 완공(頑空)으로서 병이 깊기만 하다. 지금 천하에 참선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위 모두 이 병에 걸려 있다.

'본지풍광(本地風光)'에서 '본지(本地)'는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풍광(風光)'은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가리킨다. '본지풍광'을 달리 말하면 보조 스님이 <수심결(修心訣)>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공적영지(空寂靈知)'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공적(空寂)'이라 하고, 이 공적한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부처님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령스런 앎을 '영지(靈知)'라고 하기 때문이다. 고요한 마음자리인 선정 속에서 밝은 지혜가 드러나고 밝은 지혜 속에 고요한 마음자리가 있어야 진정한 부처님의 세상이 다가온다.

'단멸공'이란 화두를 챙길 때에 마음을 잘못 챙기므로 '공(空)'에만 집착하여 아무 것도 없는 고요하고 깜깜한 경계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행자는 이 자리를 화두공부의 마지막인 줄 알고, 이 고요한 경계에 안주하고 집착하여 더 이상 공부할 생각을 내지 않는다. 이 경계를 '침공체적(沈空滯寂)'이라고 하니, 이 경계는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닌 경계이므로 '무기공'이라고 한다. '무기(無記)'에서 '기(記)'는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여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무기는 선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또한 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선도 악도 아닌 성품을 말한다. 이렇듯 빈 성품에만 집착하여 깜깜한 곳에서 더 이상 화두를 챙기지 않고 안주함으로써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무기공'이다. 이 이치를 모르는 수행자들이 이 경계에서 '일체구무(一切俱無)'라고 하여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높은 소견으로 삼기도 하는데, '단멸공'이나 '무기공'이나 '일체구무'는 공(空)에 집착함으로써 깜깜한 경계에 떨어져 생기는 병이니 모두 '완공(頑空)'이다.

환한 자리에서 신령스런 앎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행자들이 이처럼 '단멸공'이나 '무기공' 또는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진 경계'에 집착하여 화두를 더 이상 들지 않고 마니 그 병은 깊기만 하다. 부처님 세상이 환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수행의 마지막 자리에서 뚫어야 할 '높고 아득한 진리의 문[孤峭玄關]'을 꿰뚫을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높고 아득한 진리의 문'이란 참선 수행자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목숨 걸고 참구해야 할 화두이다.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자의 생명은 화두이다. 이 화두를 통하여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무명을 다 떨쳐야 비로소 공부를 마칠 수 있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화두 통해 마음 속 무명 떨쳐야 공부 마칠 수 있어
맑고 향기롭게 닦는 수행만이 부처님 세상 가는 길

向上一關 措足無門. 雲門云 光不透脫 有兩種病 透過法身 亦有兩種病 須一一透得始得.

깨달음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미세한 번뇌도 발붙일 곳이 없다. 운문 스님은 "마음의 빛이 모든 번뇌를 꿰뚫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병이 있고, 마음의 빛이 법신을 꿰뚫은 뒤에도 또한 두 가지 병이 있으니 모름지기 하나하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꿰뚫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 글은 대혜 (1089-1163)스님의 <서장>에서 인용한 글로 원전에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나와 있다.

"운문(864-949) 스님은 말한다. 마음의 빛이 모든 번뇌를 꿰뚫지 못하는 데에 두 가지 병이 있다. 모든 곳에 밝지 못하므로 눈앞에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이 하나이다. 또 하나는 모든 법이 공(空)임을 꿰뚫었더라도 은근하게 어떤 경계가 있는 듯해서 또한 마음의 빛이 마지막 무명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법신(法身)에도 두 가지 병이 있다. 법신에 다가갔더라도 법집(法執)을 떨치지 못했기에 자기의 지견이 아직 남아서 법신 언저리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이다. 또 하나는 설사 법신을 꿰뚫었더라도 화두를 놓쳤다면 곧 무슨 기척이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할 수 없으니, 이 또한 병이다.[不見 雲門大師 有言 光不透脫 有兩般病 一切處不明 現前有物是一 又 透得一切法空 隱隱地 似有箇物相似 亦是光不透脫 又 法身 亦有兩般病 得到法身 爲法執不忘 己見猶存 坐在法身邊 是一 直饒透得法身去 放過 卽不可子細檢點來 有甚麼氣息 亦是病]"

대혜 스님께서도 수행자가 넘어야할 마지막 관문인 이 경계는 아주 미세한 번뇌만 남아 있는 곳이니 중생들은 참으로 알아채기 어려운 곳이라고 한다. 중생들뿐만 아니라 성인에 가까운 십지(十地) 보살들도 알기 어려운 곳이라고 한다. 알기 어려운 곳이지만 화두 수행자는 화두에 의지하여 화두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공부를 지어나가야 한다.

어려운 수행이지만 그 수행의 가치를 알고서 기쁜 마음으로 맑고 향기롭게 닦아 가는 수행만이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 이 병을 알면 도리어 향기로운 약이 되어 공부를 해 마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不行芳草路 難至落花村.

향기로운 꽃밭 길을 거치지 않고
아름다운 꽃동네엔 가기 어려워.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7>



게송

<바라문경(婆羅門經)>에 나오는 게송(偈頌)이다. 게송이란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하거나 교리를 운문체로 기록한 것으로, 시적 운율로 간결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운문체의 가요, 성가, 시구, 게문(偈文), 송문(頌文)을 뜻하고, 협의적으로는 초기불교에서 경전의 구성 요소로 삼는 십이부경(十二部經)의 하나로서 흔히 경문의 한 단, 또는 전체의 마지막에 두는 운문체의 시구를 말한다.

게송에는 일정한 가르침을 제시한 뒤에 설법 내용을 강조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운문체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압축하는 중송(重頌 또는 應頌), 경전의 1절 또는 총결 뒤에 아름다운 글귀로 묘한 뜻을 읊어 놓은 고기송(孤起頌 또는 諷頌)이 있다. 중송과 고기송의 차이는, 중송은 본문의 내용을 거듭해서 읊고 운율을 맞추지 않는 형태로 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고기송은 아름다운 문구로 운율을 맞춤으로써 감정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송은 내담자의 인지적 성숙에, 고기송은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

위에 예시한 게송이 나온 배경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부처님이 길에서 걸인 바라문을 만나 구걸하며 지내게 된 사연을 물었다. 그러자 바라문은 아들을 장가보내고 재산을 물려준 뒤 쫓겨나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부처님께 여쭈었다. 말씀을 듣고 난 부처님은 걸인 바라문에게 위의 게송을 지어 주며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아들을 향해 읊으라고 일러 주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게송의 여러 가지 효과를 활용하였다. 첫째, 시적 운율로 되어 있는 게송이 일반적인 대화보다 외워 지니기가 쉽다는 점이다. 둘째, 게송으로 아버지의 불쌍한 처지를 읊음으로써 아들의 감성에 호소했다. 셋째, 아들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읊게 함으로써 아들이 온전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 넷째, 만약 그래도 아들이 외면할 경우 대중들이 아들에게 심리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했다. 다섯째, 대중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게끔 함으로써 앞으로도 함부로 아버지를 내칠 수 없게 하였다. 즉 대중으로 하여금 아들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데 대한 증인 역할을 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게송 활용은 그 효과가 매우 커,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며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셨다.

'예술상담'과 비슷, 정서적 변화 유도 통찰 이끌어내
부처님은 문학 · 음악적 특성 게송 통해 통합 활용

게송을 현대 상담의 관점에서 비교해 본다면, 문학과 음악을 상담에 적용한 '예술상담'이라 할 수 있다. 예술상담의 장점은 무엇보다 내담자의 정서적 변화를 유도해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무의식 깊이 저장되어 훈습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부처님은 문학의 인지적인 측면과 음악의 정서적인 특성을 게송을 통해 통합하였다.



그림 : 문병성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사천왕(四天王)

사찰을 찾아가면 일주문을 제일 먼저 만난다. 일주문을 지나 고즈넉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천왕문을 지나게 된다. 천왕문 안에는 험상궂고 덩치가 산만한 사천왕들이 둘씩 좌우로 불자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 부리부리한 눈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도 있다.

칼 탑 등을 손에 들고 사람을 발아래 밟고 있는 사천왕은 왜 이렇게 험상궂은 눈초리로 불자들을 바라보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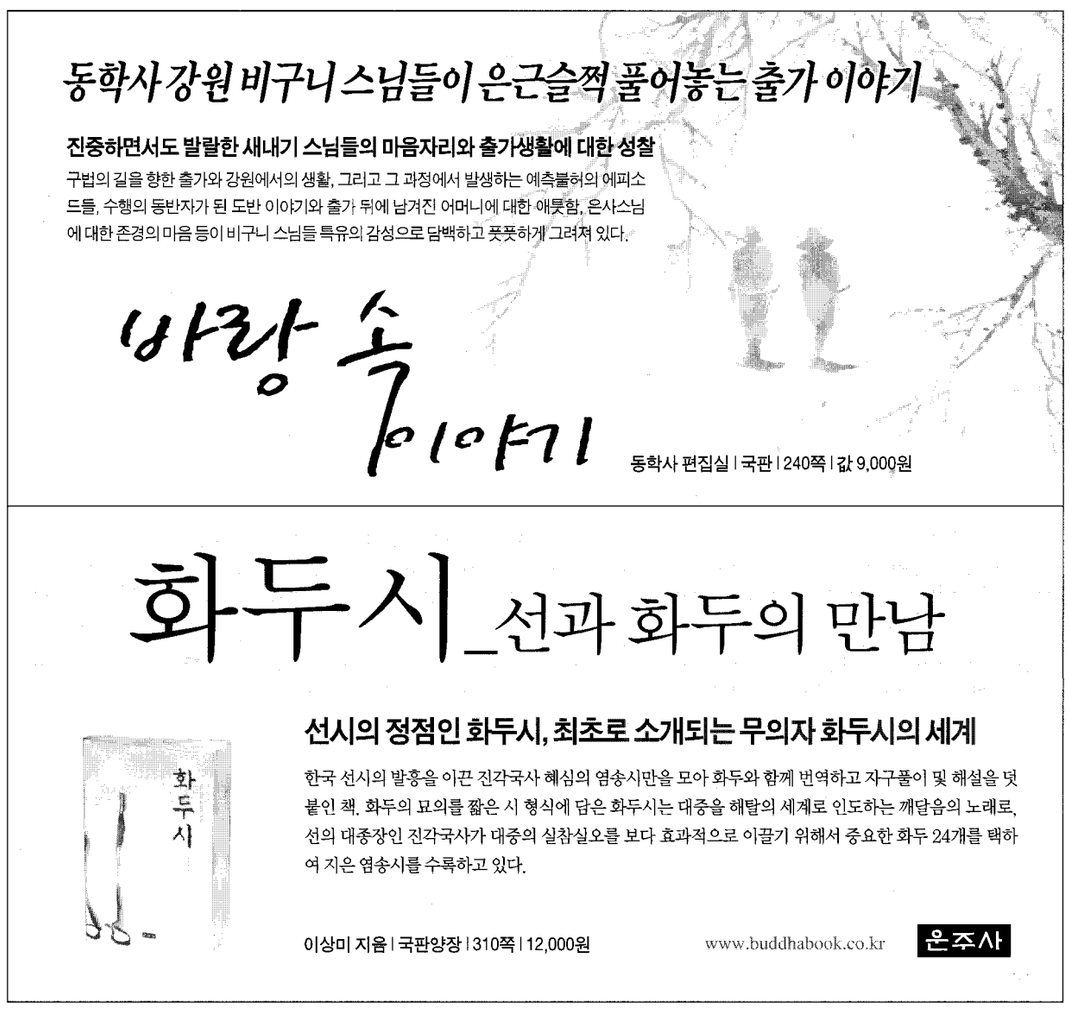
사천왕은 수미산(須彌山)의 중턱에 있는 사왕천(四王天)의 주신(主神)이다 각각 동서남북 한 방향씩을 맡아 수미산을 수호한다. 동쪽은 지국천왕(持國天王), 남쪽은 증장천왕(增長天王), 서쪽은 광목천왕(廣目天王), 북쪽은 다문천왕(多聞天王:毘沙門天王)이다.

사천왕은 사대천왕(四大天王) · 호세사천왕(護世四天王)이라고도 불리며 욕계육천(欲界六天)의 최하위를 차지한다. 수미산 정상의 중앙부에 있는 제석천(帝釋天)을 섬기는 사천왕은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을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건달바 · 부단나, 구반다 · 폐려다, 용 · 비사사, 야차 · 나찰 등을 각각 부하로 부린다. 또한 사천왕은 이들 외에도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쌍산(持雙山) 등 일곱 겹의 산맥과 태양 · 달 등도 지배하고 있다.

증장천왕(增長天王)은 용(龍), 지국천왕(持國天王)은 검(劍), 다문천왕(多聞天王)은 비파(琵琶), 광목천왕(廣目天王)은 탑(塔)을 들고 있다. 강지연 기자







戒의 그릇이 튼튼해야

가정이 행복

선지식을 찾아서

월서 스님 (봉국사 주지)

월서 정릉 골짜기에 위치한 봉국사를 찾았다. 수백 년은 되었을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월서 스님의 거처인 염화실 위로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염화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난향과 묵향이 코 끝에 와 닿는다. 은은한 난향과 묵향으로 고향에라도 온 듯 마음이 안온해진다.

월서 스님은 대법원에 해당하는 종단의 사법기구인 호계원에서 12년을 보냈다. 호계원장 소임을 두 번이나 맡아 그 누구보다도 수승하게 해 내었기에 사람들은 월서 스님을 가리켜 종단의 호법신장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스님은 호계원장 소임을 끝내면서 특별법으로 멸빈자까지도 모두 다 풀어주었기에 참으로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월서 스님은 나이 쉰이 넘으면서 제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기 시작하였단다.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그 후로 스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중노릇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무리 집착을 해 봐도 결국은 변해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니 욕심도 줄어들고 화도 덜 내게 되더군요. 부귀와 명예와 수복(壽福)을 다 구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고생만 하며 사는 것이 평생 호강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할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그렇게 마땅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고 홀쳐서라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가? 또 죽음을 앞두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대답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그것이 두려우니까 죽음 자체도 두려운 것이지요. 불교의 참선은 다른 공부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공부입니다."

무섭기로 유명한 금오선사의 상좌인 월서 스님은 수행자로서 살아갈 덕목을 이미 행자생활을 하면서 터득하였다. "금오 스님은 잠시라도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셨지요. 나무를 하든가 청소를 하든가 정진을 하든가 무엇이라도 일을 해야 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금오 스님의 그 정신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남아 있어요."

금오 스님은 강원에서 공부하기 보다는 참선공부하기를 원했기에 월서 스님은 그 뜻을 받들어 선방생활도 하고 토굴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동화사에서 결제했을 때입니다. 반결제날 '정진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용맹정진을 하다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해서 주지인 월산 스님이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방구들을 파헤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용맹정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체적인 조복은 받았지요. 그 다음부터 참선공부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 후에도 월서 스님은 결판을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지리산 도솔암 토굴에서 혼자서 결제를 하여 여름을 난 적도 있다. 밥 해 먹는 시간이 아까워 생쌀로 연명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을 하였다. 그러다 종단의 소임을 맡아 일을 하게 되었고 선방에 앉을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참선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그래서 맡은 소임의 임기가 끝나면 바로 선방에 방부를 들이기도 하였다. 수행자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기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수행자의 참뜻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서슬 푸른 수행자의 기개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이요, 수행자의 삶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말씀이다.

불자로서 오계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오계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스님께 토로하였다. 월서 스님은 오계의 가르침은 종교 신자나 특정인만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동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지켜야 할 보편적인 실천덕목이라고 한다. 오계를 모르는 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였다.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율(律)은 부처님의 행동이라고 서산대사는 말하였습니다. 계는 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계의 그릇이 튼튼해야 호수처럼 고요한 선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수행의 근본은 계학을 잘 닦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보살계를 앉아서 받고 서서 깨뜨린다 하더라도 많이 받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살계를 많이 받다보면 10계가 뇌리에 각인되어 있어 실천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천오백 년 전 부처님 당시에 하신 말씀이 현대에 와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습성이 있어 죽이지 않아도 되는 벌레들을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까? 불살생계는 생명가치를 경시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구조에 대한 거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불투도계는 경제생활에 대한 불교의 교훈이며 자기가 정당하게 행한 노동의 대가만 가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즈음 이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불사음계만 지킨다면 이혼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은 아내만을 아내는 남편만을 생각하고 일생 해로(偕老)하면 자연히 가정이 행복하지요. 불망어계라,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이지만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에 불음주가 있는 것은 앞의 사계를 잘 지켰다 하더라도 음주를 함으로서 오계를 다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고 나면 세상이 좀 만만하게 보여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술을 마실 수도 안 마실 수도 없을 겁니다. 영 안 마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절제를 하여 지혜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계율을 잘 지킨다면 자신의 수행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종단의 호법신장답게 스님은 가정의 행복까지도 계율에서 찾았다. 스님은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외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몸으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수행의 방편으로 틈틈이 붓글씨를 쓰시는 스님은 평소에 애송하는 문구를 하나 써주셨다.

심여벽해능객물 인사청련불염진(心如碧海能容物人似淸蓮不染塵), 마음은 푸른 바다처럼 모든 것을 용납하되 스스로는 연꽃처럼 티끌에도 더럽혀지지 말라.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굴되 남에게는 관대하라는 경구이다. 가르침에 가르침을 더하였으니 청복을 누린 날이다.

오계에 대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오늘 생각지도 않게 계를 받았다. 수계의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보살들이 외호하고 있었겠지만 또한 염화실의 난초(蘭草)들이 내 수계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난향으로 팔목에 연비를 하였다고나 할까.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영원한 것 아님을 인식하면 집착 줄어들어"
오계는 모든 사람 이익 위해 지켜야할 덕목



월서 스님은 1956년 회엄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5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0년 법주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 1972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동화사 금당선원, 해인선원, 봉암사선원, 감인선원, 제주여주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취. 경주 분황사, 경주 불국사, 조계사 주지 역임. 제 4~12대 중앙 종회의원역임. 현재는 금오문도회 운영위원장이며, 원로회의 원로의원이다.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氣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대)
· 묘법연화경요품 (중,대)
· 금강경(소, 중, 대)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함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분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욱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만공 스님(2)

만공, 배가 가는 것이냐, 섬이 가는 것이냐

혜암,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들어올린다 (마음이 움직인 것!)

어느 날 만공(滿空, 1871~1946) 스님, 혜암 스님, 진성 사미가 함께 배를 타고 간월도의 간월암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배가 물살을 가르며 섬을 향해 움직이자 주변의 작은 섬들이 서서히 지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만공 스님이 옆에 있는 진성 사미에게 물었다.

"배가 가는 것이냐, 섬이 가는 것이냐?" 그러자 진성 사미는 한 걸음 물러나 차수(손을 모으는 것)하고 서 있었다.

그때, 혜암 스님이 말했다.

"스님, 저에게도 물어봐 주십시오."

"오, 그래. 혜암 수좌. 배가 가는 것인가? 섬이 가는 것인가?"

"배가 가는 것도 아니고 섬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심전심'으로 제자의 의도 간파

'비풍비번(非風非幡)' 공안과 유사

"그럼 무엇이 가는가?"

혜암 스님은 아무 말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어올렸다.

그러자, 만공 스님은 감동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아, 혜암 수좌, 자네 공부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된 지 좀 되었습니다."

만공 스님과 혜암(惠菴, 1886~1985) 스님의 한 폭의 그림 같은 이 선문답은 육조혜능 스님의 깃발에 대한 선화와 매우 유사하다. 이른바 '비풍비번(非風非幡)' 공안은 혜능 스님이 중국 남쪽의 광주 법성사에 이르렀을 때, 마침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대중들이 무엇이 흔들리는 것인가에 대해 왈가왈부(曰可曰否) 하고 있을 때 나온 일화다.

대중의 한 쪽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다'고 했고, 한 쪽은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자 혜능 스님이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모여 있던 대중이 크게 놀랐다고 한다.

만공-혜암 스님의 문답은 '비풍비번' 공안과 비슷한 스토리의 대화이지만, 더욱 격조가 높다. 즉 구차한 말로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의 즉각적인 동작으로 드러낸 점에서 혜능 스님의 법문을 뛰어넘어 조사의 은혜에 보답했다고 할만한 탁월한 문답이라 할 수 있다.

만공 스님은 뛰어난 두 제자의 공부를 위해 일상 중의 경계를 가지고 "배가 가는 것이냐, 섬이 가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혜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어올리는 것으로 답을 했다. 그렇다면 이 행위가 혜능 스님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는 답과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물론 그 뜻은 다르지 않지만, 혜암 스님은 '마음이 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바로 보이는 방법(동작)을 대신 썼다.

만약 혜능 스님의 말을 모방해 똑같이 말했다면 앵무새라는 핀잔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말을 내세워 설명했으니 '벌써 제2구(句)에 떨어졌느니라'라는 만공 스님의 질책을 받았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혜암 스님은 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란 언어 대신,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들어올림으로써 마음을 바로 보인 것이다.

이 뜻밖의 행동에 만공 스님은 손수건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때 스님은 제자의 의도를 간파했다. '이 손수건을 보는 그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라는 혜암의 말없는 말을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알아차리고, 제자의 공부를 인정한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내 안의 부처 찾는 길 보이는가?

부산 미타선원, 효산 스님 초청 '간화선 특별법회' 회향

부산의 5대 명당에 자리잡고 있는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 좌청룡 우백호의 두 산을 양 날개로 하여 부산항을 내려다 보고 있는 미타선원은 아미타부처님을 모시고 사바세계의 험난한 바다를 건너 불국토로 나아가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의 형국이다.

1년 7개월 전, 하림 스님이 4년 동안 미국 불광선원에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다 귀국해 주지를 맡은 후 미타선원(mitazen.net)은 많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의 신도교육과 포교에다 참선과 염불을 두 바퀴로 하는 수행을 강조하면서, 어느덧 부산의 유력한 수행도량으로 떠올랐다. 창문을 열면 용두산의 바람소리, 남해바다의 파도소리가 어우러져 일상에 지친 심신을 편히 쉴 수 있는 선방은 어느덧 시민들이 즐겨찾는 수행처가 된 것이다.

게다가 지난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큰법당에서 열린 효산 스님(효산선원장) 초청, '내 안의 부처를 찾는 길-간화선 특별법회'는 50여 동안거 결제 대중과 시민들이 참선의 노하우를 터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마음과 몸 그리고 말의 원리, 마음의 힘을 찾아 쓰는 법, 간화선의 여섯 가지 수행과정 등 효산 스님이 오랜 실참을 통해 체득한 공부법을 전해주면서 불자들이 바른 신심과 안목을 갖추고 용맹정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재가자들이 갈피를 잡기 힘든 간화선을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지도해 온 효산 스님은 1934년 전남 순창에서 출생, 13세에 고암 스님을 은사로 동진출가 했다.

17세부터 통도사, 해인사 등 제방 선원에서 40여 년간 용맹정진한 끝에 '이뭣고?' 화두를 타파한 스님은 "일체중생이 본래부처(本來佛)요/ 밤중의 암흑(夜中暗黑)이 모두 밝음(皆是明)이라/ 근본은 색도 아니요(非色) 한 물건도 없는데(無一物)/ 일체의 곳에 따라(一切隨處)에 청·황색을 드러낸다(現靑黃)"는 오도송을 읊었다.

5년 전부터 부산에 효산선원을 열어 재가자를 지도하고 있는 스님은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미타선원(051-253-8687) 신도를 위한 정기 점검과 지도에도 나설 예정이다.

효산 스님은 평소 올바른 수행에 앞서 몸과 마음, 말의 원리를 알아서 기초를 다져야



효산 스님이 '내 안의 부처를 찾는 길'을 법문하고 있다.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화두에 의심을 잡아서 몰아붙이는 정확한 방법과 올바른 진로를 알고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갖춰야만 마음의 위대한 힘을 찾아서 100% 꺼내 쓸 수 있다고 설한다. 일반적으로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만 하였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법에 대한 법문은 듣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6월 16일 회향법문에서 효산 스님은 그동안 7회에 걸쳐 진행한 선법문을 다시 간추려 들려주었다. 이날 법문을 요약 정리한다.

마음의 위대한 힘을 찾아 쓰라

마음은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다. 일체의 형상이 없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다 이 마음을 쓰고 있다. 이 세계는 허공계이고, 이 허공계는 허공(虛空), 바람, 전파(電波), 공기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허공계 전체를 아우르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강하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겨우 쓰고 있을 뿐이다. 만약 알고 쓴다면 전 우주와 일체 물질계를 포함하는 허공계를 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힘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단지 그 힘을 찾아 쓰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장애에 처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마음을 찾아 쓰는 법을 가르치셨고, 그 후로도 모든 도인(道人)과 스님들도 그것을 깨우쳐 중생에게 베풀기 위해 공부하며 노력하고 있다.

간화선의 여섯 가지 수행 과정

'무엇이 이 몸을 가지고 다니는고?' 할 때, '고'자에서 알 수 없는 의심을 딱 잡아 가야 한다. 먼저 의심을 딱 잡아 몰아서 힘을 얻어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하면 결국 동정일여(動靜一如)가 된다. ① 동정일여란 앉으나 서나 가나 누우나 깨어 있을 때나 잠이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의정이 끊어짐 없이 화두에 몰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동정일여가 계속 유지되면 ② 몽중일여(夢中一如)라 하여 항상 꿈에도 의정이 끊어짐이 없어 그 의심덩어리를 잡고 몰아붙인다. 꿈속에서도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삼매(三昧)가 유지된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③ 숙면일여(熟眠一如)의 단계이며 깊은 잠에서도 의정이 떠나지 않는다. 오매일여(寤寐一如)라고도 하며, 깨어 있거나 잠에 빠져있거나 항시 삼매가 유지된다. 이 단계를 불퇴전(不退轉)의 경지라고 하는데, 다시는 보통 사람의 삶으로 퇴전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가면, ④ '성성적적(惺惺寂寂)'이라 하는데, 뚜렷하게 화두의 의심은 들고 있지만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고요함을 지키는 단계이다.

이 자리를 놓고 달마 스님이 <혈맥론(血脈論)>에서 "마음이 장벽 같이 되어야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心如墻壁 可以入道)"고 했다. 이를 은산철벽(銀山鐵壁)이라고도 한다.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즉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경지이다.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몰아붙이면 결국 ⑥ 확철대오(廓徹大悟)한다. 그 자리를 비로소 '견성했다', '참 도인이 됐다'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내외명철(內外明察)이라고도 한다.

육신통이 나와야 진정한 확철대오

확철대오하면 곧 바로 육신통(六神通)을 걸림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 확철대오하기 전에 나오는 신통은 경계해야 하지만 확철대오 후에 의무적으로 육신통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공부해온 과정을 점검해 봐야 한다.

간화선은 화두 하나 타파하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다. 하나를 알면 다 알아야 하고, 하나를 모르면 다 몰라야 되는 것이다. 간화선에서는 진로를 모르고 공부를 하면 여러가지 경계에서 도인이 된 줄 알고 어긋난 길로 접어들게 된다. 간화선을 하다 의리선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확철대오 이후에는 보림(寶林: 돈오 이후에 습기(習氣)를 제하면서 성태(聖胎)를 키우는 공부)에 들어가서 불지(佛地)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보림 공부는 복과 지혜가 함께 오르도록 노력해야(福慧雙修) 하며 많은 인연을 맺어야 한다.

부산 미타선원=김성우 객원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신유식론 강의**=서울 동현학림은 7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송찬우 중앙승가대 교수의 '신유식론 강의'를 개설한다. 교재는 웅십력(熊十力)의 《新唯識論》. (02)732-3038

●**선강(禪講) 및 참선실수**=부산불교교육대학은 매주 월요일 저녁 7~9시, 상임법사 겸 원장인 이도원 법사의 지도로 선강(禪講) 및 참선실수를 진행한다. (051)711-0700

●**우 빤냐싸미 스님 여름집중수행**=남양주 봉인사는 7월 2일부터 29일까지 우 빤냐싸미(U. Pannathami: 우 빤디따 선사의 수제자) 스님 초청 여름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7월 2~8일은 기초수행(가피와 수행, 의식개발 프로그램), 7월 9~29일은 위빠사나 본 수행으로 진행. (031)574-5585

●**아눌라 스님의 여름집중수행**=아눌라 스님(깔야나미타 명상선원장)은 7월 22일~8월 16일 죽산 도피안사에서 위빠사나 여름집중수행을 연다. 매일 법문과 인터뷰도 진행. (011)520-0100





혀로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실천을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⑯ 내가 없다면 말한 바도 없다

말 잘하는 사람

"졌어요, 졌어.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 져 보긴 난생 처음이었어요."

P씨는 자신이 상당히 똑똑한 편이고 특히 말을 잘한다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몇 년 전 불교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도 불교사상을 잘 이해해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면 불자다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교역사, 경전해설서들을 잔뜩 사서 읽고 남들에게 설명해 주며 '역시 나는 똑똑하니까 불교공부도 잘 하는거야' 하며 만족했다.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의 참선지도 선생님을 만나러 가자고 했다. '마음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야'라고 하길래 불교가 마음공부지 뭐 따로 있나 하며 한번 재보려는 마음이 들었다.

만나보니 똑똑해 보이지도 않았다. "공부 많이 하신 선생님이시라고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데 도전적인 느낌이 스스로도 느껴졌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배워야 되겠죠."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친구가 "선생님, 화내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죠?"하면서 질문하였다. P씨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자신이 얼른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읽었던 불교 책이며 스님들 법어집에서 읽은 내용을 읊기 시작했다.

친구가 "아니, 이 봐. 난 선생님께 여쭈었는데 자네가 대신 대답하면 어떡하나." 하고 나무랐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아니, 괜찮습니다. 아주 답을 잘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계속해 주세요"하였다.

P씨는 순간 기분이 우쭐해졌다. 그렇게 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주로 P씨가 말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가끔 몇 마디만 할 뿐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

불교 경전·법어집 머리로만 이해
사람들 앞에서 언변 뽐내며 우쭐
참선지도 선생님 통해 '無我' 인식
마음으로 행하는 실천 정진 노력

같지가 않았다. '그거 봐, 나처럼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자기가 선생이든 뭐든, 내 말을 듣고 느끼는 바가 많을 거야'하며 열심히 떠들었다.

말한 바가 없는 말

마침내 일어나며 P씨는 "오늘 말씀 잘 나눴습니다"하고 인사했다. 순간 선생님의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내가 없다면 말한 바도 없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 친구는 "너 무아 몰라? 불교의 기본이 내가 없다, 무아잖아"라고 했다. 뭐라고? 앗. P씨는 머리가 멍해졌다고 한다.

함께 보낸 세 시간을 생각해 보니 자기는 내가 말한다는 집착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반면 선생님은 말을 할 때나 듣고 있거나 마음자리가 한결 같이 텅 빈 느낌이었다. 세 시간이나 말을 나누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같은 느낌을 주었다.

내가 없다? 내가 없으니 말한 것도 들은 것도 없다? 책에서 읽었던 나라는 집착이 없는 상태, 평정심이 바로 이것이구나. 자기는 불교를 머리로 말하고 선생님은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완전 패배, '내가 있다'가 '내가 없다'에 진 거예요."

P씨는 그 후로 불교에 대한 책을 읽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다스리는 공부에 들어갔다. 전에 결코 느껴 본 적이 없는 깊고 고요한 평화를 맛보게 되었다.

"정말 놀라워요. 아무리 말을 잘 해서 누구를 이기고 기분이 좋아도 이런 느낌과 힘을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 내가 한다는 집착을 놓으니 이렇게 평안해 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 힘듭니다." 앞으로도 집착 없는 마음으로 행하는 실천을 생활에서 체험해보려고 부지런히 정진할 생각이다.

걸림 없는 마음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말을 잘 해도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에 비할 수는 없다. 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걸림이 있기 마련이다.

내가 한다는 생각은 온갖 집착과 사량분별을 일으키며 생사윤회의 업으로 남게 된다. "걸림 없이 살 줄 알라"고 하셨다. 나를 세우지 않는 마음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이 피어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산행게시판

●불교중앙박물관 문화자원봉사자 모집=불교중앙박물관이 7월 31일까지 문화자원 봉사자를 모집한다. 신심이 돈독하고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불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문화자원 봉사자가 되면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해설 봉사를 하게 된다.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총무원 1층 민원실, 조계사 종무소, 조계종 홈페이지(buddhism.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화자원 봉사자 지원서 및 사진 1장을 제출하면 된다. (02)2011-1960

●구룡사 영가천도를 위한 백중 49일 기도=서울 구룡사는 백중을 앞두고 영가천도를 위한 백중 49일 기도를 한다. 7월 10일 입재해 8월 27일 회향할 예정이다. (02)575-7766

●고양 흥국사 템플스테이=고양 흥국사 주말템플스테이가 7월 7일 마련된다. 매월 첫째 셋째 주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템플스테이 '참 나를 찾아서'는 연꽃등 만들기, 연등 탑돌이를 비롯해 '참다운 인생이란?/참 나를 찾는 법' 주제 특강과 참 사랑 자아 기도법 등을 배울 수 있다. (02)381-7970

●지광 스님 초발심자경문 강좌=지광 스님(능인선원 장)이 6월 27일~7월 25일 매주 수·금요일 저녁 7~9시 역삼동 스튜디오에서 능인사이버불교대학의 새 강좌 '초발심자경문' 강의를 촬영한다. 이번 강의는 촬영하면서 동시에 방청도 가능하다. 역삼동스튜디오는 능인선원 부설 건물로 6층에 방송용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다. (02)577-5800 (내선 336)

●도선사 제28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서울 도선사는 7월 20~22일 제28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여름불교학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새싹 불자들에게 자비의 씨앗을 움트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회비는 2만원. (02)993-3161

●미황사 한문학당=해남 미황사가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위한 '여름방학 한문학당'을 개설했다. 1차는 7월 29일~8월 5일, 2차는 8월 8~15일로 각 차별로 초등학교 4~6학년 50명을 모집한다. 동참금은 25만원. 〈수심보경〉으로 한문을 배우고, 산사체험, 문화체험, 다도, 요가명상 등도 함께 이루어진다. 접수는 6월 30일까지. (061)533-3521

월암 스님의 禪과 노동 ❶

'선농겸수'는 선종 발전의 힘

(禪農兼修)

이끄는 말

견성성불(見性成佛)하고 요익중생(饒益衆生)하기 위해 출가한 오늘날의 수행자는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해야 할 것인가? 노동은 출가 공동체의 유지와 운영의 방편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노동 그 자체가 그대로 수행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선종의 입장에서 볼 때 선종의 생존과 발전의 방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선농겸수(禪農兼修)를 통한 자급자족(自給自足)의 생산활동을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도불교에서는 출가 수행자는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무소유

중국 전래 후 '생산불교'로 변모
'노동의 수행화' 불교사에 한 획
생산불교의 노동 가치 상실 추세

를 원칙으로 하되 오직 삼의일발(三衣一鉢)만을 소유하며, 걸식을 통한 일종식(一種食)을 생활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여러 초기경전에서는 한결같이 출가사문(비구)의 생산노동을 금지하고 오로지 좌선과 명상 그리고 유행을 통한 수행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숫따니빠아타(Suttanipata)〉와〈잡아함경〉 제4권을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바라문과 석존의 대화, 즉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믿음은 종자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내 멍에와 호미, 부끄러움은 괭이자루, 의지는 잡아매는 줄, 생각은 내 호미날과 작대기입니다. … 노력은 황소이므로 나를 안온의 경지로 실어다 줍니다.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걱정이 사라집니다. 이 밭갈이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단 이슬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법정 역,〈숫타니파타〉샘터, 1991. p30-31)에 의거하면, 육체적 노동과 물질적 생산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노동과 수행에 의한 해탈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불교의 전통이 중국에 전래되어 자연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출가 승려가 직접 노동 작무에 참여하고, 물질적 생산활동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게 된다.

특히 선종교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선수행과 노동활동을 일치시키는 '선농겸수(禪農兼修)'의 생산불교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선농겸수의 정신과 실천은 자급자족(自給自足)의 생활방식이 되어 법난(法難)이라는 외부의 충격에도 선종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보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선종의 법맥이 지금까지 전수되어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여타의 종파와 달리 선종이 오늘날까지 유지 발전되어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인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을 통한 자급자족의 생활방식을 들 수 있다.

선종에서 장려하고 있는 노동은 단지 생산활동의 수단으로만 실시된 것이 아니다. 노동의 일과와 수행정진이 겸수되어 노동의 참가치를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동정일여(動靜一如)라는 수증(修證)의 방편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선종에서의 노동의 수행화(修行化)는 불교사에서 획기적 사건으로 선종이 선종다운 종지종풍(宗旨宗風)을 선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 선종은 노동의 가치를 상실하고 자급자족이라는 생산불교(生産佛敎)의 전통이 무너져 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선농겸수의 선풍 속에 생활선의 조사선 가풍을 되살리기 위한 일련의 사상적 작업의 일환으로 선종의 노동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월암 스님은?

월암(月庵)스님은 1973년 경주 중생사로 출가했다. 동헌선사를 계사로 도문화상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81년 해인사에서 고암선사를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중국에 유학하여 선종 조정(祖庭) 100여 도량을 두루 참배하였다. 또한 중국의 여러 선지식을 참방하고, 眞如禪寺, 柏林禪寺, 南華禪寺, 天童禪寺, 靜居禪寺 등 선원에서 선칠(禪七)안거했다. 북경대학 철학과에서 중국철학을 공부하고, 선학 '선종사상사'를 전공하여, '돈오선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백양사, 화엄사, 칠불사, 봉암사, 정혜사, 벽송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 하였다. 지금은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다.

佛心 성불화

만트라 ㉮ 출시!

산행, 캐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기능성신발 전문제조업체인 (주)롱스마일에서 만든 만트라 성불화 신발은 신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두 번을 놀란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 하고 놀래고 두 번째는 오래 걷고 등산이나 산행을 하여도 발이 아프거나 피곤하지 않는 것에 감탄한다. 요즘 중국산 저가 신발을 신고 발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오랜 기간 발과 신발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온 롱스마일사는 신발 내부는 푹신하면서도 발의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켜 줘야 하고 아치와 용천을 받쳐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준다. 캐주얼, 여행, 운동, 산행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색상과 모양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선물용으로도 최고다. 가격 98,000원



■만트라 ㉮는 옴마니 반메훔의 뜻으로 진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사(音寫)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만트라 ㉮옴마니 반메훔 성불화는!

- 용천과 아치를 받쳐주는 편안함
- 신고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밑창
- 땀이 잘 차지 않는 뛰어난 통풍성
- 몸무게를 분산시켜 주는 신발내부구조
- 가볍고 푹신한 착용감

성불화 보급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라꾸라꾸 접이식 침대

접이식 라꾸라꾸 온열침대

국내 접이식침대의 대명사 라꾸라꾸에서는 2007년형 모델을 출시하고 할인판매에 돌입했다. 라꾸라꾸는 접이식 침대의 최대장점인 **이동성과 공간활용성과 경제적인면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대란 오랜시간 사용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요한 가구이기 때문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선행되어야 하고 얼마나 수면건강에 도움이 되며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과 공간활용에 필요한 기능성과 이동성을 중시하여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특히 이제품은 **매트의 재질을 항균, 방취처리**를 하여 매우 위생적이어서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온열기능이 내장된 1인용 싱글은189,000원 2인용은 218,000원이며 일반형은 1인용138,000원 2인용은 158,000원에 특별할인판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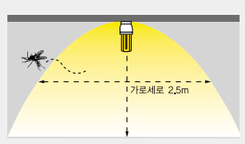
작은방, 원룸, 오피스텔, 학생용, 하숙방, 경비실, 현장, 병원, 야외용으로 최고입니다.

▶1인용 : 83cm×198cm×31cm
▶2인용 :123cm×198cm×31cm

구입문의 : 080-788-7878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모기, 깔다구, 날벌레 꼼짝마!

여름이면 모기, 깔다구, 야행성 날벌레로 고생하는 사람이 수 없이 많다. 가려움으로 살이 짓무르는가 하면 모기, 깔다구로 야외 영업장에서는 손님받기도 힘들다. 야외나 실내에서 모기약을 치거나 향을 피우면 건강에도 나쁘고 아이들이나 알레르기,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다.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한 비젼전자에서는 모기, 깔다구, 날벌레를 퇴치하는 전구를 개발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내 또는 야외활동이나 야외영업장에서 간단히 전구만 바꿔끼우면 절전은 물론 반경 3~4m에는 야간해충이 얼씬도 않는다. 이는 태양광을 이용한 원리로 야간해충이 극도로 싫어하는 가시광선의 파장 때문이다. 식당, 가든, 팬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등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며 가격은 20W는 22,000원, 45W는 48,000원에 특별보급하고 있다.



[모기퇴치 범위]

●**사용장소** : 사찰,식당, 가든, 팬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현관, 거실, 아이방, 놀이방, 도서관 공원 등

구입문의 080-307-3070
농협 1285-02-011378 (이현실)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임상완료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개발한 신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년여에 걸쳐 안전성 임상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서울대 임상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질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mℓ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과천시민회관, 아이들 위한 '2007 Have Fun!'
재미있는 발레 · 마술, 해설있는 연극 등 다양해요

Have Fun!

'과천에 가면 재미가 있다'





전통발레의 무거움 벗고
알록달록 앙증맞게 연출
직접 동작 배워보기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공연 장면.

"발레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6월 19일 과천시민회관. 저녁 8시가 넘었는데 아이들이 아직 작은 공연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아이들은 사뭇 진지하다. 어떤 아이는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런데 잠깐, 발레가 재밌다고? 발레는 예술이다. 예술은 어렵다. 어려운 것은 지루하다. 그러니까 발레는 지루하지 않을까.

발레는 주로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 우아한 의상과 토슈즈(발레용 신발) 때문에 늘 어렵고 높아만 보였다. 그런 발레의 세계가 어린이들에게 몸을 낮췄다. 바로 과천시민회관이 마련한 '2007 해브 펀(Have Fun)!' 프로그램의 '재미있는 발레'를 통해서다.

19일 공연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다. 널리 알려진 대로 루이스 캐롤이 쓴 동화가 원작이다. 그리고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으로도 유명하다. 금발머리 소녀 앨리스가 흰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사건들을 겪는 이야기.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발레로 옮겨지는 것일까.

'재미있는 발레'는 '발레로 보는 동화이야기'로 아이들에게 동화구연을 하듯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알려준다. 그러면서 관련 영상과 춤이 어우러져 어린이들도 쉽게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철저히 아이들의 이해와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또 일반 발레 공연과는 달리 무대가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통해 시각적 자극을 받고 좀 더 즐거운 무대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너무 부담스러운 기술 대신 작고 앙증맞은 표현 위주로 공연을 진행하는 것도 어린이를 위한 발레 무대의 특징이다.

너무 춤과 설명만 곁들여졌다 싶을 때쯤에는 서울발레시어터 강사 선생님의 지도로 직접 발레 동작을 배워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여러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발레로 표현해볼까요? 오른손을 들어서 내 가슴에 대면 '나는', 상대편을 향해 뻗으면 '당신을'이에요. 두 손을 모아 심장이 두근두근 대는 곳으로 가져가면 '사랑합니다'예요."

다음, '아름답습니다'의 발레 표현은 이렇게 해보자. 손등으로 얼굴선을 전체적으로 훑어주면 된다. 또 오른손으로 왼손 넷째 손가락을 가리키면 '결혼해요'라는 표현이다.

이렇게 동작을 배우고 나면 진짜 무용수를 꿈꾸는 어린이들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런 어린이들은 공연 15일 전부터 인터넷홈페이지(www.ballet.or.kr)를 통해 이벤트 신청을 해보자. 선착순 10명을 선정하여 예쁜 발레복과 토슈즈를 신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이날 발레 공연을 보고 난 후 아름이(7 · 과천시 막계동)는 집에 돌아가는 내내 공연 시간에 봤던 발레 동작을 따라하며 "다음에 또 발레 보고 싶다"면서 즐거워했다.

이밖에도 과천시민회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놀이마당이 준비되어 있다. '해브 펀' 프로그램에는 발레 외에도 '재미있는 마술', '해설이 있는 연극'도 있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예술을 접하게 만든다. 즉 매월 둘째 주 화요일마다 어린이들이 과천시민회관을 이용하면서 감수성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과천시민회관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린이 '맞춤형'이다. 사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러한 공연들이 열리는 장소다. 과천시민회관은 결코 대형 극장이 아니다. 지금까지 예술 무대는 무조건 큰 공연장에서밖에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면 소도시의 작은 극장도 충분히 지역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들이기에 공연 도중 좌석 밑으로 들어간다던가, 화장실에 간다던가, 또 산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좋은 공연 속에서 조금 더 아이들이 감수성을 가지고 자라난다면, 이런 프로그램 꼭 한 번 보여줘도 좋지 않을까. (02)500-1220

과천=김강진 객원기자 · 사진제공=과천시민회관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EBS '똑똑 교육충전소'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 특히 불교적 마음공부를 통해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 다스리는 방법과 학습에 응용하는 방법이 6월 21일과 28일 소개될 예정이다. 방송시간은 저녁 8시부터. (02)526-2100

남산 서울타워에서는

정크아트체험전이 8월 31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만지고 올라타고 움직여보는 신나는 체험'이라는 주제로 진행, 기존의 수동적인 전시회와 차별화를 선언한다. (02)3444-9750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에서는

비엔나미술사박물관전이 열린다. 합스부르크 왕가 최전성기에 수집된 렘브란트, 루벤스, 벨라스케스 등의 유명작가 바로크 회화 걸작을 64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6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속된다. (02)368-1414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는

서울시 어린이예술마당 세 번째 기획전인 '가족의 정원'을 통해 퍼포먼스 모노드라마 '여행'을 선보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극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7월 1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02)767-6051

서울 어린이대공원역내 예술마당체험교실에서는

'세상을 향한 가족의 정원 만들기 체험'이 열린다. 체험 가능일은 7월 3일~ 8월 31일이며 시간은 오후 2시와 4시다. 한국실험예술정신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쉽게 살이 빠지는 비법 공개
관절염을 가정에서 쉽게 해결하는 비법 공개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남산스님 약력
• 경북 칠곡군 기사면 출생
• 한사대(현 대구대)특수교육센터 졸업
•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과 졸업
• 중국 남경 중의대학 기공학 석사과정 수료
• 중국 요녕성 중의약 대학교 비만학과 교수
• 녹색 대학교 석좌 교수
• 한국대체의학 연구소 소장

국부카르마 문 의 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암)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전화 02)2004-8219 [국민은행] 023-25-0007-617 (주)에이치비엠씨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예전에는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온가족이 밥을 먹었어요. 어른의 자리가 아랫목에 마련되고 간자를 나란히 놓았지요. 간자가 은수저가 아니더라도 어른의 수저는 함부로 다룰 수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끼리 함께 밥을 먹기도 힘든 생활을 하고 어른의 수저인 간자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반듯하려면 갖은 소리 할 필요 없이 '밥 먹는 문화'부터 제대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른이 있는 세상, 가족이 있는 세상, 참 따스해지지요?

간자 : '어른의 숟가락'을 높여 이르는 말.

개비 : 1. 가늘게 쪼갠 나무토막이나 기름한 토막의 낱개. (마치 참새 새끼라도 잡은 듯 한 손으로 성냥갑을 잔뜩 움켜잡고 개비를 뽑아 득 그어 댔다.)(최인훈<광장>)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가늘고 짤막하게 쪼갠 토막을 세는 단위. (그는 성냥 한 개비가 다 탈 때까지 초에 불을 붙이지 못했다.)

갖은소리 : 1. 쓸데없는 여러 가지 말. 갖은소리 그만하고 본론만 얘기해라. 2. 아무것도 없으면서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체하는 말. (없는 처지에 주제넘게 무슨 갖은소리냐.)

개개풀어지다 : 졸리거나 술에 취해서 눈에 정기가 흐려지다. '개개풀리다'와 같은 말이다. (선여는 눈곱이 끼고 개개풀어진 눈으로 강 첨지를 흘겨보며 볼멱은 소리를 지른다.) (이기영<신개지>)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세상에 충실하려 했으나 세상은 '나'를…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최서해 作 '탈출기'

'탈출기'는 1925년 <조선 문단> 3월호에 발표된 작품으로 주인공 '나(박 군)'가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는 가족을 뒤로 하고 사회 운동을 하게 된 이유를 친구인 김 군에게 고백하는 편지글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프롤레타리아 소설로 꼽히기도 해요.

이 작품은 본래 1924년 <조선 문단> 10월호에 '풍년년'이란 필명으로 투고된 체험기로서, 이광수의 권유에 따라 소설로 고쳐 쓰게 된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체험이 곧 작품화된 것으로 가난한 삶의 고발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일제 강점기 만주 간도지방을 배경으로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 단편소설이지요.

'나'는 5년 전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새 삶의 터전이요, 기름진 땅이라는 간도를 찾아갔다. 그곳에만 가면 농사를 지어 배불리 먹고 무지한 농민을 가르쳐 이상촌을 만들겠다는 부푼 꿈이 있었다. 그러나 간도에는 빈 땅이 거의 없었고, 소작인을 하려고 해도 밭을 주지 않았다. 성실하고 정직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 보지만 빈곤은 날로 심해만 갔다.

어느 날 임신한 아내가 귤껍질을 주워 먹는 것을 보고 '나'는 심한 갈등과 자책감에 빠졌다. 생선장수, 두부장수를 하면서 연명했지만, 갓난아이는 젖 달라고 보채고, 겨울이 닥쳐와 땔나무가 있어야 두부장수도 할 수 있어 산에 가서 나무를 도적질 하다가 순사에게 잡혀 수없이 매를 맞았다.

'나'는 세상에 충실하려고 했으나, 세상은 '나'와 어머니와 아내까지도 멸시하고 학대했다. 하루라도 괴로운 생활과 굶주림과 추위에서 벗어나려면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궁핍 · 부조리한 현실 고발 작가의 실제 체험 소설화

그러나 그 때 '우리는 여태까지 속아 살아 왔다.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험악한 제도의 희생자로서 살아 왔다'는 분노가 머릿속에서 꿈틀대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제도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민중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아내, 자식까지 버리고 OO단에 가입하게 되었다.

소설을 읽을 때 등장인물을 우선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나(박 군)는 고향을 떠나 간도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을 떠난 지식인. 현실의 모순과 궁핍에 순응하는 인물에서 사회적 모순의 원천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OO단에 가입하고, 아내는 순박하고 수줍음을 잘 타는 여인이죠. 어머니는 궁핍 속에서도 아들의 고통을 대신하기를 바라는 전형적인 모성의 여인으로 읽혀요.

하지만 소설을 읽다보면 '나'가 사상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버려야 하는 논리적 필연성은 미흡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아에 대한 인식 이전에 가족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그 나름대로 현실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대부분 전형적인 신경향파 소설의 결말이 살인이나 방화 등에 의해서 처리되는 데에 견주어 본다면 이 탈출기 소설에서는 'OO단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경향파 소설들보다 좀 더 현실적인 작가 의식을 느낄 수 있지요. 이러한 최서해의 현실적 의식은 당시 신경향파의 이론적인, 혹은 이념적인 주제 의식과는 달리 작가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겠지요. 일제강점기 소설들을 읽다보면 지금의 우리가 그 시대를 견디고 이겨낸 조상들의 인내와 고통과 싸운 정신덕분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늘 우리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살지 못했던 시대와 역사를 알아야겠지요.

학생여러분들은 이 '탈출기'를 읽다보면 전통적인 소설의 구성 방식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간문, 즉 편지글이라는 형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같이 느껴져요. 작가의 실제 체험이 독자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지요.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화날 때 어떻게 해야하죠?

화가 많이 나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내면 저 자신이 괴롭고 자꾸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화 안 내는 방법 없을까요?

(ID:화내기싫어)

마음 속 타오르는 불 먼저 끄세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들은 흔히 짜증이나 화를 내곤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당한 만큼 그에게 돌려줄까?'라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지요. 이렇게 노여워하는 불길이 크게 일어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큰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불길이 극단적으로 외부로 향하면 남을 다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르면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일단은 쉬어야 합니다. 산길을 걷다가 자칫 길을 잘못 잃은 사람처럼, 바로 그 자리에 앉아 마음을 편하게 하고 주변을 둘러봐야지요. 누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합시다. 불이 타고 있는데 방화범 잡겠다고 동네방네 찾아다니면 안 되지요. 일단은 불부터 끄고 봐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상처가 있다면, 참을 수 없이 화가 솟는다면, 그럴수록 불 낸 사람을 찾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타오르는 불을 꺼야 해요. 부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경전에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틱낫한 스님은 <화>라는 책에서 화난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들을 잔잔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솟아오르거나, 견디기 힘든 상처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파올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아니면 마음을 모아 한 걸음 두 걸음 조용히 걷거나, 거울을 보며 굳어버린 내 얼굴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불을 끄고 나면, 또는 산길에서 느긋하게 쉬고 나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모두가 행복해질지 길이 저절로 보일 것입니다.

(서울 옥천암 청소년지도법사 운산 스님)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작수 대진 합장



美를 초월해 美를 추구하는

불교 꽃꽂이의 세계



한국 꽃 예술과 불교

지연 편저 | 인아 펴냄 | 2만원

꽃꽂이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꽃,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의 극치인데 꽃들을 모아 의미 있는 형상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아름다움을 넘어선 자리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보고 느끼는 감각의 유한성을 뛰어넘으려는 노력, 꽃꽂이를 통해 아름다움 이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 꽃꽂이의 '맛'이다. 꽃꽂이도 선(禪)인 것이다.

부처님이 영산에서 한 송이의 연꽃을 들어 보인 것은 꽃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다. 그러나 꽃이 아니라면 어떻게 법이 전해져 가섭을 미소 짓게 했겠는가? 유마거사의 방에 내린 꽃비도 법의 비였고 <아미타경> 등에 묘사된 극락세계 역시 온갖 화려하고 장엄한 꽃으로 꾸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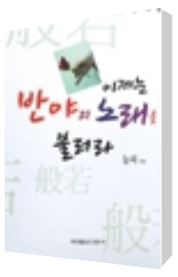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통 꽃꽂이의 기원도 불교의 전래로부터 시작된 불전공화(佛前供花)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쇠퇴일로를 걷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30년간 불교 꽃꽂이의 맥을 살리며 새로운 조형예술로서의 자리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해 온 지연스님이 펴낸 <한국 꽃 예술과 불교>는 불교와 꽃 예술의 역사적 관계 규명에서 작품론, 실습지도 등이 자세히 실려 있다. 기초지식과 기본적인 기법을 충분하게 해설함으로써 초보자도 꽃예술의 세계에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 불교의 각 의례에 따른 꽃 예술의 기본과 응용 방법 등도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지연 스님은 1972년 꽃 예술에 입문해 국제전에 30회 이상 출품 했으며 전국불교꽃꽂이연합회를 창립,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불교의 꽃 이야기>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임연태 기자**

김해 바라밀선원 능허 선원장의 구도역정

시련 딛고 피어난 '성불의 불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 지음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 1만2000원



10년 전 우리나라를 덮쳤던 IMF는 국민 모두에게 시련이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중견 기업까지 도산의 파고에 휩쓸리고 개인파산의 수렁에 빠져 거리로 내몰린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IMF라는 나락에서 새로운 희망을 길어 올려 삶의 길을 바꾼 사람도 많다. 시련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됐지만 그 미증유의 고통을 '기회'로 받아들인 사람은 떳떳한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났다.

김해 바라밀 선원 능허 선원장은 IMF라는 시절 인연 앞에서 철저히 망했던 경우다. 시장에서 콩나물 천원 어치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 그러나 나락으로 향한 길을 극락으로 돌려놓았다. 선지식을 만나 각고의 정진을 한 결과였다.

능허 선원장에게 있어 인생의 전환점은 선지식과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헐벗은 몸으로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하다가 서울 보광사 조실 정일 스님을 만나 "죄 많은 이 중생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절복하는 순간 깨침의 씨앗이 발아했던 것이다. "자네가 살아날 길은 있어.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정일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기로 한 뒤로 능허 선원장은 삼천배 광명진언 등으로 정진 했다.

그 후 정일 스님으로부터 '무'자 화두를 받고 화두 일념의 정진에 각고의 세월을 보냈다. 3년이 넘는 기간 화두와 자신을 둘 아니게 계합시키는 수행을 통해 마침내 정일 스님으로부터 "성불 하였네"라는 인가를 받았다.

물론 단숨에 된 것은 아니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을 읽고 또 읽으며 그 대의를 깨치고 한 소식을 들었지만, 정일 스님은 "여래를 보았지만 조사선의 차별지를 뚫어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덕산탁발화'와 '파자소암' 두 공안을 통과하라는 것이었다.

능허 선원장은 목숨과 바꿀 각오로 3년을 정진했고 "조주여, 천년 살림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라고 힘차게 외쳤다. 정일 스님도 손을 맞잡으며 "눈 밝은 사람은 속일 수가 없구나. 부처님도 불법이 이러하고 역대조사도 이러하고 나 또한 이러하고 자네 또한 이러하기에 전할 수 없는 법을 자네에게 전한다"며 인가했다.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는 능허 선원장의 구도역정과 깨침의 살림살이를 담백하게 담고 있다. 스승 정일 스님의 행장과 법문이 제1부를 장식하고 제 2부와 3부는 능허 선원장의 수행 정진 그리고 오도의 소식을 담고 있다. 마지막 제4부는 능허 선원장에게 '한 소식'을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묶여졌다.

나락을 극락으로 돌려버린 능허 선원장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간절하게 당부한다.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자리를 철저히 깨달아 무시(無始)로 실천하는 '착한 사람'이 되라."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불교, 우리 종교문화를 들여다보는 거울



한국의 종교 불교

최준식 지음

이화여대 출판부 펴냄 | 1만2000원

불교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유교가 한국인들의 사회적 성격을 결정했다면 불교는 한국의 종교문화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남아있는 한국의 문화재 가운데 70% 이상은 불교문화재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입문서이다. 저자는 서론에서 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고 있는데, 과거 불교가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나라에 얼마나 큰 사상적 · 문화적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20세기에 서양으로 건너간 불교가 동서문화 융합의 주역으로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인들은 불교를 받아들일 때 교리를 받아들이기에 급급했다고 말한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세계관에서부터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 깊이를 알 수 없는 자비 사상 앞에서 경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불교를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급속히 불교화시켜 나갔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저자에 따르면 불교는 중국에만 머물지 않고 곧 중국의 이웃인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됐으며, 일본에서는 고대문화 기틀 마련에 불교가 초석이 됐다고 한다.

1부에서는 불교가 어떤 종교이고 붓다는 어떤 인물인지를 그의 가르침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이어 2부에서는 불교의 발전과정과 승가의 형성, 초기 불교의 전개, 대승의 출현과 한국으로 전파된 북방 불교의 모습이 소개된다. 마지막 3부에서는 한국불교가 중국이나 일본 불교와 다른점이 특징을 중심으로 나열돼 있다. **김주일 기자**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불상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2

최완수 지음

대원사 펴냄 | 3만원

삼국시대 대표적 불상인 국보 제 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이 불상은 소녀처럼 보이는 앳띤 인물이 날씬한 자태를 뽐내고 앉아 있다. 이 불상에서는 외형적인 모습이외에도 당시 영토 분쟁을 벌였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상황과 민심을 읽을 수 있다. 전쟁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미륵이 나타나 현세의 고통을 없애줬으면 하는 발원이 많아졌고 삼국은 이를 계기로 민심 결집 수단책으로 사찰마다 미륵보살을 조성했다. 이런 와중에 민심을 달래기 위한 미륵 하생(下生 · 출현)이야기도 유포되고 각국 간의 미륵 쟁탈전도 벌어진다.

최완수(65)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이 최근 출간한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2>에서는 삼국에서 시작해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삼국 시대를 지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는 불교 교단에서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행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이른바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때는 미륵보살상 대신 부석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처럼 아미타 불상이 조성됐다고 저자는 덧붙인다. 또한 이 책은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란 제목과 '미륵 하생과 아미타 출현'이라는 부제목에서 보듯, 미륵보살상과 아미타 불상의 원류를 찾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저자가 삼국의 역사를 웬만한 역사책 이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시대의 미술이 세상과 동떨어진 채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2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윤수	한산암
3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4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5	인연법과 마음공부	해국	효림
6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7	안거	봉문	법보신문사
8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9	염불수행입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10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30%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 법회가 7월 1일(日) 열립니다.
◆서울선원 ☎02-522-0122(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11시
◆광주선원 ☎062-944-4088
선문염송/6월17일(매월 셋째 일요일) 오후 2시
◆부산선원 ☎051-545-2460
◆반야심경/6월24일(매월 넷째 일요일) 오후 3시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단' 은 6월 20 · 23일 양일간 양양 낙산사에서 '2014 동계올림픽 평창유치기원 법회' 를 봉행했다. 사진은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왼쪽 세번째)과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왼쪽 네번째) 등 3000여 순례단이 낙산사 경내로 들어서고 있다.

관음 성지에서 인류평화·민족 화합 염원

108산사순례기도회 낙산사서 '2014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기원 법회'

"화마 딛고 중창불사 원만회향 되길" 간절한 마음 모아
경내 환경미화·특산물도 구입…군부대에 초코파이 보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군 일대를 화마(火魔)가 휩쓸고 지나갔다. 이때 관음성지인 낙산사에도 불똥이 튀어 큰 화재가 발생했다. 원통보전을 비롯해 전각 16동이 불타고, 보물인 동종(銅鐘)이 소실되는 등 문화재 5점이 훼손됐다. 다행히 관음전은 보타전 · 홍련암 · 의상대와 함께 그나마 전소(全燒)를 피했다. 하지만 해수관음상은 불에 그을렸다.

2년이 지난 지금 낙산사는 많이 바뀌고 있었다. 불에 탄 주변 나무들은 모두 베어내고 새순이 파릇파릇 돋아났다. 원통보전 불사도 한창 진행중이었다. 모든 것이 좋아보였다. 복원불사를 위해 사용될 통나무 켜는 소리에 큰 활기가 느껴졌다. 언제 그랬냐는 듯 낙산사는 아픈 상처를 잘 삭히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낙산사에 큰 위로와 힘을 보태줄 행사가 열렸다. 6월 20일 복원불사중인 원통보전 앞에서 펼쳐진 '2014 동계올림픽 평창유치기원 법회' 다.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많은 인파다. 전국 사찰에서 가는 곳마다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단' 이다. 화재의 흔적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어 약간은 휑한 경내가 비좁을 정도로 금방 꽉 채워졌다. 어떤 아픔도 함께 나눌 것 같은 불심으로 중무장된 듬직한 모습들이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2014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기원 법회' 에서 이날 참석한 3000여 불자들의 합성은 양양군 낙산사 경내를 넘어 전국으로 울려 퍼지고도 남을 정도로 기백이 넘쳤다. 다음달 4일 남미의 과테말라에서 결정되는 개최지가 평창이 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했다.

참석자들은 낙산사측에서 미리 나눠준 수기를 흔들며 법회장에 들어섰으며 법회에서는 모아진 온 국민의 열망이 과테말라의 IOC위원들에게 전해지기를 기원하며 "평창"을 연호했다.

순례기도회를 이끈 도선사주지 혜자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인종과 국경의 벽을 넘어 인류를 하나되게 하는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반드시 이뤄내 한민족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자"며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내는데 불자를 비롯한 온국민의 염원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낙산사주지 정념스님도 법문을 통해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치르기에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아마 개최지 결정전 수많은 대중이 모이는 마지막 법회인 이 자리에서 불자들의 염원을 한데 모아 IOC위원에게 우리의 의지를 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 첫 법회를 시작해 10번째인 이번 법회는 2014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순례순서를 변경' 평창 유치를 염원하는 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낙산사에서 봉행됐다.

또 기도회 참가자들은 법회가 끝나고 낙산주차장에 마련된 농산물 직거래 일일장터를 방문, 지역특산물을 구입하는 등 농촌사랑 의지도 보여줬다. 직거래 장터에는 양양의 특산물인 버섯을 비롯해 미역, 다시마, 설악산 취나물, 인진쑥 등 20여종의 농산물이 선보였다.

혜자스님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108만원을 김두원 양양부군수에게, 순례자들은 들고온 쵸코파이 3만여개를 군부대 장병에게 전달했다. 모든 기도순례 일정이 끝난 뒤에는 3개월전 내소사에서 발족된 '108순례기도회 환경지킴이' 회원 1백여명이 낙산사 경내를 돌며 환경미화 활동을 펼쳐 관광객들에게 눈길을 끌었다.

한편 '108산사 순례기도회' 는 이번달부터 <일심광명(一心光明)>이란 제목으로 35페이지 분량의 잡지를 발행해 순례기도회의 취지와 목적, 기도순례 현장 화보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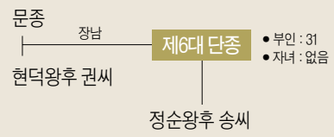
청령포에 떠도는 외로운 고혼…550년 만에 천도



6대 단종 장릉

단종 1441년~1457년, 17세 졸
재위 3년 2개월 1452.5(12세)~1455.5(14세)

제6대 단종 가계도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더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놋다

민초 엄홍도가 목숨걸고 단종 시신거둬 동을지산 기슭에 암매장
180년 후에 종묘 안치 · '장릉' 능호, 짧은 생애 '권력의 비정' 덧칠



단종 유배지 청령포.

열일곱 살 소년을 철벽 요새 청령포에 유폐시키고 돌아오는 금부도사 왕방연의 시조다.

세월은 약이다. 역사는 멀리서 바라보는 드라마다. 당대 복잡한 현실은 접어두고 후대인들의 측은지심 반상 위에 오롯이 놓인 존재가 단종이다. 권력의 묘약이 무엇인지도 모를 나이에 왕위에 올라 항거할 근육도 없는 어린 나이에 이승을 하직했다. 민주주의란 개념이 씨앗조차 없던 시절, 세습 왕조의 희생물이다. 철부지로 맘껏 뛰놀 나이에 무거운 용포를 입고 딱딱한 용상에 앉아 있다가, 납치극의 주인공처럼 밤낮으로 와들와들 떨다가 죽었다.

"숙부! 수양 숙부! 날 살려주세요. 죽이지만 마세요."

입 안 가득 모래알을 넣은 듯 절규마저 말라버렸다.

"전하! 신이 신명을 다해 전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묵직하고 담대한 음성이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진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은 이를 두고 이름인가.

피지도 못하고 떨어진 동백꽃 송이, 험악한 권력 쟁투의 바다에 던져진 조각배, 그가 단종이다. 17년 짧은 생애를 요약해보자.

▶1441년(세종 23년) 아버지 향(후에 문종)과 어머니 권씨(후에 현덕왕후)의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남. 25세인 어머니는 난산으로 홍위(단종의 이름)를 낳고 3일 만에 죽음. 위로 동갑내기 친누이 경혜공주가 있고 아래로 이복누이 경숙공주가 있음.

▶3일 만에 어머니를 여읜 홍위는 할머니뻘인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에 의해 양육된다. 혜빈 양씨는 후덕한 여자였다. 세손이 될 홍위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둘째 아들(수춘군)을 품에서 떼어 유모에게 맡기기까지 했다.

▶8세. 1448년(세종 30년) 세손에 책봉됨. 할아버지 세종은 세손을 무척 아낌.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신숙주 등 집현전 소장학자들을 은밀히 불러 세손의 앞날을 부탁함. 세종 자신도 이미 병세가 악화된 상태이고 세자 향 역시 병약하여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음. 죽음을 앞둔 노(老) 성군(聖君)은 어린 세손이 혈기왕성한 자신의 아들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일을 걱정함.

▶10세. 1450년 세종 승하. 문종 즉위. 홍위는 세손에서 세자로 책봉됨.

▶12세. 1452년 병석에만 있던 아버지 문종이 즉위 2년 3개월 만에 어린 세자를 부탁한다는 허약한 고명(임금이 신하에게 유언으로 뒷일을 부탁하는 일)을 남기고 승하.

▶12세. 1452년 부왕의 승하와 동시에 단종 즉위. 20세 미만 미성년인 왕이 즉위하면 궁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후비가 수렴청정하는 것이 관례이나 당시 궁중 사정이 여의치 않음. 대왕대비는 물론 대비도 없고 심지어 왕비도 없는 상태임. 통치의 무중력 상태, 카오스 상태에 빠짐. 단종의 모후는 죽고 없고 문종의 후궁으로 귀인 홍씨, 사칙 양씨가 있었으나 세력이 없었음. 세종의 후궁 중에 단종을 키운 혜빈 양씨가 있었으나 늦게 입궁한 데다 후궁인 탓에 정치적 발언권이 없었음.

▶13세. 1453년(단종1년)10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킴. 안평대군을 조종하여 종사를 위태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김종서, 황보인 등 대신들을 피살함. 안평대군 사사.

▶14세. 1454년 1월 송현수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임.

▶15세. 1455년 6월 수양대군이 금성대군 이하 여러 종친, 궁인, 신하들을 죄인으로 몰아 유배시키자 위험을 느낀 단종은 왕위를 내놓고 상왕으로 물러나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김. 일각 여삼추 같은 3년 2개월의 재위에 막을 내림. 아직 비극이 끝나지 않음.

▶16세. 1456년 6월 상왕 복위사건 일어남. 성삼문, 박팽년 등 집현전 학사 출신과 성승, 유응부 등 무신들 사형 당함.

▶17세. 1457년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 청령포로 유배됨.

▶17세. 1457년 9월 유배되었던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단종은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강봉됨.

▶17세. 1457년 10월 사사됨. 동강에 버려진 시신을 엄흥도가 거두어 동을지산 기슭에 암장하다.

반 천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보는 이의 손에 땀이 나고 숨이 막힌다. 권력에 연루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목숨과 치욕을 담보해야 쟁취할 수 있다. 세습제의 비극을 원 없이 보여준 인물이 단종이다. 이후 전개된 상황은 이렇다.

암장된 60년 후 무덤을 겨우 찾았다. 그로부터 15년 후 그곳에 간단한 석물을 세웠다. 180년이 지난 1698년(숙종24년) 비로소 단종이란 묘호와 장릉이란 능호를 받고서 종묘에 들어갈 수 있었다. 2007년 4월 27일, 영월 일대와 장릉에는 이색적인 혹은 장엄한 행사가 열렸다. 단종의 국장(國葬)이 있었다. 갸륵한 민초 엄흥도가, 동강 바닥에 팽겨쳐진 시신을 목숨 걸고 암매장한 지 550년 만에 치룬 국장이자 천도재였다. 인산인해를 이룬 인파는 역사의 숙연함을 느끼기도 하고 한바탕 이벤트로 구경거리로 희희덕거리기도 했다.

청령포는 천혜의 요새다. 나룻배가 드나들 수 있는 나룻터를 제외하면 3면이 깎아지른 절벽이다. 입구만 막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행글라이더로 탈출을 감행하면 가능할까. 기막힌 유배지다. 세조의 무서운 위력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쫓겨난 어린 왕이 걸터앉아 한숨으로 짧은 시간을 보냈다는 굽은 소나무에는 이미 그의 온기가 없다.

어린 왕의 육신을 찢어오는 만큼 권력을 차지한다고 믿었던 이들도 이제 모두 이름만 남긴 채 소멸했다. 교훈을 새기는 것은 남은 자, 역사의 거울을 보는 자의 몫이다. 사육신, 생육신, 한명회, 권람 등 계유정난의 공신들, 어린 단종의 짧은 생애에는 빛과 어둠으로 치장한 무수한 이름들이 덧칠되어 있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단종의 국장 행렬(사진 위)과 단종을 죽안마에 태워 승천을 기원하는 모습.



장릉은…

사적 196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 133-1번지 소재. 면적 1,057,304평. 서울에서 가장 먼 왕릉이 장릉이다. 도성에서 100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단종의 운명 때문이다. 부인 송씨가 묻힌 사릉과는 300리 밖이다.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개정판

번뇌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 서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큰 기틀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대자유인의 삶을 가리켜 보이는 선 법문집의 백미"
서옹대종사의 법제자 제산종성 장실의 법맥을 살려 한국 조계선종의 임제가풍을 정통으로 계승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자후!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육임 수강생 모집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는
육임에 비술인 초급반과 백법반을 수시모집합니다.
육임에는 백법이라는 100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 ●사무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문의: 02)793-7333 www.saju79.com

秘法 전수

못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 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 작용법(천도)
2. 달마 사연 장중 도법(윤회)
3. 도인 침술법(귀신병)
4. 빙의 제령법(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레이키, 약손)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 경-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제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818-2358
010-5345-2358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수양기도공부

●1인 1실
●침구 및 삼식 공양 제공
●구돌,온돌,황토방
●월 30만원(선착순)
055)883-2933
011-446-2933(청학사)

명리학 책임지도

과목 : 명리학 + 성명학
28년 실전경력 책임지도함
월4회(토,일) PM 7시~9시(4개월 완성)
(초 · 중급반 2개월+고급반 2개월)
법성사 법성스님(서울 강서구 발산동)
02)2658-7003
011-695-162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지도
토요일 철야기도
영가천도, 우리말 천수경
▷상 담 환 영◁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천도재 · 49재 · 점안식

바라 · 작법무 · 태평소 · 살풀이 ·
지전무 · 극락무 · 회심곡
성심을 다해 집전해 드립니다
010-4870-8359
범음범패 무형문화재 9호 전수자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 학 강 의

명리 · 육효
적천수천미
한 문 원 서
051)523-8425
※통화중이면 지방 강의중 입니다
010-3667-8425

불교전통의식대학 개원

과목 : 천수바라 · 작법무 · 천도의식 염불
집전 교육강의
(사찰행사 : 49제 · 점안 · 구병시식)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금정마을
대한불교 원광사
주지 : 삼광스님 학장 : 무상스님
051)558-8830~1
010-3928-0006

절간에서 내려오는 불가요법으로 변비 · 숙변 · 잔변 · 설사 해결 뱃살 쏘~옥

효과없을시 환불
달성 제215호 참좋은식품
천식환자불가요법 무료
011-9562-1235
명고합장

법회를 주관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407-0298
010-6328-395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5세~70세 미만)
월 보시금 80만원 ▷울산
처사님 구함(60~70세 미만)
052)221-0092
011-9318-3230

공양주 보살, 총무보살 구함

011-493-1121

정법수행도량에서 기도스님(부전)이 필요한 사찰은 전화주십시오

010-4520-6787
054)433-631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상주
054)535-0005

부전(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서울 은평구
011-9350-321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관이 수려한 사찰)
010-3647-001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릉
019-9211-525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경남 밀양
055)353-030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화
032)937-7032
010-2240-3568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강원도 지역사찰
010-7113-8166

행자(비구니)모집 공양주 구함

011-732-6933
(강원 홍천 천축사)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1종 대형면허
(버스경력 있음)
▷55세(사찰에서 숙식가능)
010-6476-6026

신심있는 비구.비구니 스님

▷비구.비구니 65세 이상
011-498-3846
043)222-3846
043)292-081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 홍천 천봉사
033)435-8941
010-2433-1155

청정한 산속 암자입니다 산사음식으로 요양하실 두분만 모십니다

(월 50만원)
▷경북 봉화군 문수암
054)672-7357
010-8726-5595

운영이 어려운 사찰이나 포교원을 원합니다

(법납 40년, 세수 60세)
연락주시면 무보시로
큰 원력세우겠습니다
010-3131-109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성남
011-9854-9810

조계종 직할 서울 도심 조용한 사찰입니다 가족처럼 기도해 주실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010-4247-1312

행자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는
전통종단의 맥을 이어갈 예비스님 및
사미승을 모집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자율적인 교육, 1인1실
055)381-1199
011-590-1198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선 · 기공 전수 받으실 분

사찰운영에서 방편이 없으신 분 100% 활용할 수 있음
◆기간 : 주 3회 3개월
(스님, 법사, 선 ·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일반인도 가능)
※ 금번 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에서는 종도 및 간부스님을 모십니다.
※ 행자(예비스님) 모십니다.
사)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 총무원
053)754-0082 / 011-549-8130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49재 · 천도재 · 불상점안 집전

(바라 · 작법무 · 회심곡 · 합창단 · 살풀이)
아! 알았도다. 내가 곧 탐 · 진 · 치
이 몸이 삼독인 것을...
영산회상 의식 포교단(홈페이지:www.천도재.kr)
행사문의 051)557-1130 / 011-482-2091

행자(예비스님)모집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제한 없음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직강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수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한국사
● 주 지 : 법종(하응심)
● 소재지 : 강원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859-16

위 사찰과 상기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 ·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2551년 6월 27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청룡사
● 주 지 : 현우 덕륜(최수영)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561-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불기2551년 5월 29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위치 : 경기 ● 위치 : 마산
● 법당 : 21평 ● 요사 : 32평 ● 법당 : 25평 ● 법당 : 25평
● 부지 : 910평 (하천부지 500) ● 요사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2억5천 ● 부지 : 1800평 ● 부지 : 350평
● 가액 : 4억3천 ● 가액 : 7억3천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경춘국도 (서울에서 약 50분거리)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16억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전망좋음)
033)261-5285
010-2871-5285

사 찰 안 내
● 위치:원주시 속초면 평장리 원주시내에서10분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교외지역
● 부지:360평, 건평:85평(2채)
● 현재 사찰로 사용중이나 일반가정집,팬션으로 사용가능
● 가액: 3억 6천, 심야전기 사용
033)731-0997
010-4874-0997

사찰 전세 안내
● 위치:고성 읍내
● 총평수:25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주지실 5평, 삼성각
● 가액:4천만원 월 3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1-864-6696
055)674-5978

포교당안내
● 위치 : 창원시내
● 평수 : 90평 (4층 건물중 3층
● 방3, 사무실1, 주방, 화장실2, 샤워실1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0-4877-590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위치 : 서울 산속
● 부지 : 220평 ● 부지 : 500평 국유
● 법당 : 25평 목조 ● 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억3천 ● 가액 : 5억5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전세 및 월세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
● 보증금 2,000만원 월20만원 전세 : 3,500만원
● 넓은 텃밭 모든 시설완비
011-9918-5251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합천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 산신각, 용왕당 있음
● 요사3채(총 7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11-9571-171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팔도시장 근방
● 평수 : 43평, 방 2개 오존불 모셔져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시설비 절충)
051)757-79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바닷가 ● 위치 : 삼랑진역 10분거리
● 부지 : 130평 (시유지 포함) ● 부지 : 33,000평 (관리지역 7,000평)
● 법당 목조 25평 ● 법당 : 목조 15평, 요사채2동
● 주변경관, 바다전망 최고 120년 전통사찰 120년 전통고찰 정남향 산세 빼어남
● 가액 : 3억2천 ● 가액 : 4억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30억까지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사 찰 (급) 안 내
● 계룡산 갑사와 신원사 중간지점
● 법당 15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4평, 창고, 화장실2, 방7 난방 및 문화시설 완비, 넓은 자갈 주차장, 각종 밭 1000평
● 특징 : 3개 마을 자체 전부가 문중 땅이므로 영원히 자기 땅처럼 살 수 있음
● 1년 도지세 15만원(문중 지로용지로 나옴)
● 서울 · 대전 신도분들 주말농장 가능 ● 건강상 급 양도 합니다
● 가액 : 6천5백만원
관리인(보련화) 011-498-5640
주지 010-2606-1299

사찰(급)안내
● 위치:부산
● 대지:60평, 법당 30평, 요사 30평
● 사정상 급매함
● 가액:1억 7천만원 (절충가능,은행융자 3천5백만원포함)
011-9543-0226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밀양 IC에서 10분 거리)
● 대지 235평,목조 기와지붕, 단층 법당(35.10평방미터) 조립식 지붕, 단층 요사채 (67.145평방미터)
● 산신각 용왕당 사찰내부에 있음. 도로 시멘트 포장.
● 사찰 내부 주차 10여대 가능
● 가액 : 2억3천만원(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망)
010-6782-2916
054)373-2916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근교
● 목조법당 4채, 부속건물 5채,
● 가액 : 보신 후 결정
010-3163-4747
061)537-4848

사 찰 안 내
● 위치: 금산군 진산면 주지리
● 대지: 570평
● 요사채(블럭집)방4개, 화장실2개, 거실10평, 주방, 다락
● 대중전외 방1개, 용궁,산신당, 칠성당 있음
● 별도로 수양할수 있는 방1(12평), 주차장 2개
● 가액 : 2억 5천만원(절충가능)
011-9211-4219
041)753-8433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1-820-461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 ● 위치: 경북 영덕군 소재
● 부지: 1200평(시유지포함) ● 부지: 약 1000평
● 법당 : 30평, 요사 : 30평 ● 법당: 30평
● 기타 : 산신각, 석등 ● 요사: 2동 50평
● 가액 : 4억원 ● 기타: 일주문, 석등, 황토방 등
● 특징 : 도심에 위치한 영험한 도량으로 포교지로 적지임 ● 가액: 1억 4천만원
● 특징: 도심인근의 조용한 사찰로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아주 좋음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0-6658-0875

사 찰 안 내
● 위치:양산시 원동 (불사한지 한달된 신축사찰)
● 법당 1동 26평, 요사1동(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연못조경완벽
● 가액 : 2억2천만원
※스님 건강상 급 안내함
055)372-0123

암 자 안 내
● 위치: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 평수:1,300평
● 흙집 있음, 조경시설 되어있음
● 가액 : 2억8천만원
011-9917-703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방학동
● 평수 : 25평
● 삼존불 봉안, 각단 탱화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 280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 (절충가능)
018-315-01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 평수 33평, 법당15평, 요사, 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31)966-110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원주 문막읍 시내버스 정류장 앞
● 법당 : 25평(2층) 방2, 주방, 샤워장. 시설비 500만원
● 보증금300만원,월25만원
● 특징:사람 내왕이 많은 중심지 역학하시는분에게 최적지
033)731-9277
011-9483-922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양시 (종합운동장 앞)
● 평수: 75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11-9108-5484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사찰역사 300여년, 개인소유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개발지역근교
● 대지 247평, 건평 70평 (현대식 건물, 기역자형)
● 교통편리, 산좌수려
● 용도:암자,명당센터겸단식원, 수련원 또는 전원주택
● 가액:1억7천만원(절충가능)
011-9430-1144

사찰부지안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 부지 : 1870평(전)
● 우측에 맑은 계곡, 앞쪽은 큰 하천
● 가액 : 2척9천만원
011-531-556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 (대중교통편리)
● 건물 1,2층(각60평) 법당 완비 1층:법당(약40평), 산신각, 용왕당 2층:종무실, 요사채
● 총인수금:1500만원(비품포함) 보증금 500만원 월세(1,2층포함)110만원
※ 보증금 인상시 월세 인하가능
010-3534-3872

사찰 터 안내
● 위치 : 부산 포교당 최적지 수영구 광안동 수영지하철역 도보로 5~6분
● 대지 : 98평(실사용평수 100여평) 벽돌 슬라브 건물 35평(구옥)
● 가액 : 2억 9천만원
010-5084-0108

토굴 임법당
● 위치 : 불광동
● 평수 : 38평
● 법당1, 방1, 부엌1 법당이 잘 꾸며져 있음
● 보증금1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없음
※기도하실 스님이나 법사님에게 좋음
010-5573-2626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충주시
● 목조 기와 7채
● 평수 : 약2000평
● 계곡인접 앞이 확 트임
● 신축 2년된 사찰
● 가액 : 7억원
010-6399-5311

포 교 당 안 내
● 위치: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031)405-4181
010-6321-163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법당 목조 20평(단청필)
● 삼성각 1동, 황토한옥 1동, 요사채 30평(신건물)
● 각방 욕조시설 완벽, 지하수, 마당에 연못 있음
● 사정상 급 양도 및 전세, 월세
055)521-1878
011-575-0396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불심깊은 부산
● 1층 방2 (삼존불 산신)
● 특징: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편리),포교지로 최적지
● 보증금 250만원/월15만원 시설비 350만원(모든시설완벽) (역학하시는 스님 좋은환경임)
011-9016-10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법당, 약사전, 산신각
● 평수 : 대지114평, 공양간, 요사채, 방 4칸
● 가액 : 1억 (융자 2천만원 포함) 내방 후 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함
017-846-466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구
● 부지 : 2,000평
● 대웅전 50평 (주지실 및 요사채)
● 심야보일러 완비
● 가액 : 3억 5천만원
● 전세 및 달세 가능
010-2667-7363

포교당(불교회관)안내
● 위치:경남 양산
● 2층 60평, 옥상 60평
● 법당 5불전, 회관 및사무실, 방4
● 회관에서 각종 신행단체 활동과 철학 사경, 교양대학 운영으로 월수 10만원
● 전세 2천만원, 월20만원,시설비 절충
055)382-8277
016-661-35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시 동구
● 평수 : 50평(3층 건물 2층)
● 법당30평,방2개(5평), 공양간(10평)
● 가액 : 보증금 천만원,월6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아미타삼존불,지장단, 약사단,영단
010-3151-524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85번지 천년고찰 황방사
● 전망좋은 사찰
● 대지:1200평 법당:30평 요사채 2동(50평, 30평)
● 전세 4500만원
063)214-0330
010-3190-9750

임 법 당 안 내
● 위치:강원도 동해시 중심가
● 법당,방2,거실,주방,화장실 창고2,텃밭,주차공간 많음
● 삼존불,지장보살 옥불, 천수관음보살
●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집기일체 400만원
011-402-1669

암 자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 부지 : 1200여평
● 건물 5동, 법당, 산신각, 주지실, 요사2동 욕실 2(화장실3), 주방(공양간)2, 심야보일러
033)372-6494
011-790-919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 평수 : 40평(5층건물 3층) 방2, 주방, 화장실 내부시설완비 (인테리어 1년미만)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상담 후 결정
010-5529-8799
02)529-8799

세계불교 임제종 입종 안내

석가모니부처님을 교조로 하여 임제종 개조이신 임제 의현선사를 종조로 하고 선교를 수지 선양하는 세계불교 임제종의 종도를 모십니다. 합리적인 종단운영과 종헌 종법으로 중생교화의 지침이 될 세계불교 임제종과 함께하실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총무원장 법광 석혜공 합장

입종안내

■ 구비서류 : 사진 5매 (반명함판 4×5), 주민등록등본 1통, 이력서 1통

■ 등 록 시 : 사찰 사암 등록증, 임명장, 승려증, 신분증 및 법사증 발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총무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불교 임제종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전화 055)338-4008 / 011-868-2850

토굴(급)안내
● 위치 : 안동시 (시청에서 5분거리)
● 삼면이 산으로 수행인 및 스님께서 공부하던 곳
● 주차 2대 가능, 텃밭 有 방3, 거실 및 주방, 욕실
● 가액 : 전세 1300만원(양도도 가능)
010-9250-2358
010-8678-4248

암 자 안 내
● 위치: 광주 남구 월산동
● 대지 50평, 교통최요지
● 가액 : 1억 7천만원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들어오면 됨
● 시설완벽
017-602-97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충북 대학 근처
● 사주보실스님 적합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877-774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 부천 (송내역 1분거리)
● 17평형 복층(오피스텔)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동불, 소불, 산신탱화, 신중탱화, 조앙, 영가전
● 시설완비
011-9930-8710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 600평
● 법당 25평(단청), 요사채(2동) 30평, 20평
● 은행융자 1억5천 가능 즉시 법회가능
● 마당 연못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4583-20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 산세수려 기도도량, 조경완벽함. 계곡에 물 흐름
● 부지 13,000평
● 법당, 삼성각,요사채 30평, 황토방1,2층 40평
● 가액 : 20억
● 중개인 사절, 답사후
011-588-1339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표충비각근교) 국도변위치 밀양시내에서 10분 대구, 부산 30분거리
● 대지: 약200평
● 요사채 60평(적벽슬라브)1동 법당 20평(아미타삼존불)1동
● 최고급 시설, 태양열, 단독지하수 설치 사찰비품 및 전자제품일절
● 가액:2억 1천만원 (융자 7000만원 포함) 가격절충
010-8877-7913

암 자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내면
● 대지 : 500평,
● 건평 : 약1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황토방
● 대구부산 신고속도로→ 밀양IC에서 6분거리
● 대지 전체 돌담 법당 뒤 대밭 옛날 장독 100점 포함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572-150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주택가 포교당)
● 대지 : 62평
● 2층 법당, 1층 상가점포 3개, 방2(월세나옴)
● 6차선 도로에서 10m 떨어진 코너집
● 가액 : 5억원 (융자5천5백만원포함)
※기존 사찰과 교환가능
011-753-9082
031)257-59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구 50분, 창녕 20분, 진주 1시간, 의령 20분(적교삼거리에서5분))
● 대지 : 62평
● 2층 법당, 1층 상가점포 3개, 방2(월세나옴)
● 건물 : 법당(목조기와15평)
● 요사채(신축30평) 평당300만원이상들었음
● 조경공사 (석축및 옹벽콘크리트 약 4천만원소요)
● 가액 : 2억2천 (설정없으나 8천정도 설정할수 있음)
011-9329-4241
011-9506-6612

사찰 터 최적지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반야 계곡 (1200평당 15만원)
● 제천시 수산면 남한강 옆 (1400평당 10만원)
● 단양군 · 읍 천동리 소백산 밑 (3000평당 5만원)
016-464-6386
제천시 보월조경 한산 합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 학술포럼'



저출산·고령화 불교에서 해법 찾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던 구호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던 덕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돼 버렸다. 육아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사회 시스템은 출산율 1.08명이라는 최저 수치를 낳았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9.1%에 달하는 고령사회가 됐다.(이상 통계청 2005년 발표자료) 하지만 '정책'과 '수치'만으로 사태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인식'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 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5차 학술포럼의 주제를 '저출산 • 고령 사회에 대비한 불교적 방안 모색'으로 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삶과 죽음,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자는 것이다. 주제 발표 요지를 정리해 싣는다.



▷불교적 출산관-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불교는 가정을 새로운 생명(불성)의 탄생처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체들이 이루어내는 생명공동체인 가정은 그 어떤 곳보다 귀중한 공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를 낳는 것이 새로운 고통의 수레바퀴에 진입시키는 것이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지난 생(生) 이래의 윤회를 마감하고 금생에 새로운 깨달음을 이룰 불성을 지닌 존재를 키워낸다는 점에서 본다면 출산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출산의 조절은 깨달음을 얻은 새로운 붓다의 탄생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 새로운 생명의 출산은 단지 내 아이를 낳는 소승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출산 장려와 입양 권장은 개인의 힘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정부의 출산과 입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불교계에서도 임신중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세계 최고 임신 중절율과 세계 최저 출산율의 두 기둥을 소통시킬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다.

▷불교적 가족관-김일명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불교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관계를 같은 종교의 길을 가는 동반자, 즉 도반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부부의 도반관을 근간으로 평등과 화목을 가족의 중심 가치관으로 삼는다. 한 집에 산다는 것은 물리적 거주의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보시를 베풀고 지혜를 닦아가는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한다. 돌봄과 베품의 의미체로서 가족의 위치를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혈연보다는 '인연'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 불교의 가족패러다임은 저출산 고령화로 야기된 '돌봄'의 부재현상에 일침을 가한다. 부부간의 인격적 평등은 의무적 '돌봄'이 아니라 자발적 배려를 통한 관계맺기를 함으로써 상호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폭제가 된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돌봄'의 사회화를 실천하는 작은 지역공동체가 생겨나고 공동육아 방식의 어린이집, 생태주의적 학교, 공동부양협동조합 방식의 데이케어센터 등이 생겨나기를 희망한다.

▷불교적 노년관-신성현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늙음의 괴로움은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 육체가 무상하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자는 육체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괴로움이 덜할 것이고, 내 몸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 사는 사람은 늙음의 여러 형상들을 보고 자신을 혐오할 것이다.

부처님은 노인을 구호할 때 육체가 겪는 괴로움보다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또한 부처님은 노년에는 지계와 믿음, 지혜와 공덕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으며 늙음의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늙음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늙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늙음이라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인간존재의 본연의 모습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정행을 완성시킴으로써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늙음의 괴로움도 무명(無明)과 갈애(渴愛)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자각하고 청정행과 팔정도를 실천하여 소멸시킨다면 인간은 마침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적 죽음관-오진탁 교수(한림대 철학과)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문화'가 없다. 죽어 가는 사람을 육체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치료할 뿐, 영적으로 보살피는 의식이 결여되어 외로움에 지치고 압박감과 미몽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은 두려움 혹은 절망, 부정, 분노, 슬픔, 삶의 마무리, 순응, 희망, 마음의 여유, 밝은 죽음이라는 단계로 죽음을 받아들인다. 죽음을 수용해 순응하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사람 중에는 마지막까지 죽음을 거부하거나 분노를 표하기도 한다.

불교는 생사불이(生死不二) 즉 삶과 죽음 사이에 조금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마저도 어둠을 밝히는 광명으로 삼으라고 가르쳤다.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질문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출세 등을 모색하는 '삶의 양'과 관계되는 질문인 반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하는 질문은 삶과 죽음의 의미 · 보람 · 죽음방식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삶의 질'과 관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다운 사람의 권리만 생각했을 뿐, 인간다운 존엄한 죽음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았다.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을 실제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40. 의례화 된 차

고려 초기는 신라의 전통 문화와 신앙을 이어 민족의 신앙으로 도가(道家)와 선종(禪宗) 중심의 불교가 공존하고 있었다. 당시 외국과의 문물교류가 활발해 외국 사절단과 무역업자들이 들어올 때 고려의 수도인 송도(松都, 개성의 옛 이름)에는 큰 시장이 형성되었다. 중국의 무역선은 고려의 연등회나 팔관회에 맞추어 배를 출항시키기도 했다. 고정적인 상점 외에도 노상(路商)이 형성되었으며, 귀족, 관리, 상인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문물교류가 활발했다. 이러한 교역 물품 중에 차가 왕실과 귀족층의 하사품과 선물로 유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찰과 민간에까지 널리 확대되었다.

고려 왕실 국가의례때 진차 의식 베풀어
사찰 주변 다촌 형성 품질 좋은 차 생산

고려 태조는 그의 자손들이 후대에 꼭 지켜야할 <훈요십조>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연등(燃燈)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八關)은 천령(天靈) · 오악(五嶽) · 명산대천(名山大川) ·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촌(茶村)이 있었다는 통도사.

고려 왕실은 국가의례로 매년 11월 팔관회와 2월 연등회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이때 왕이 직접 진차(進茶) 의식을 베풀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임금이 신하에게 차를 올리라고 명하면 차를 올리게 된다. 태자와 신하들에게도 차가 주어진다. 이렇게 해 모두 차를 마시고 나면 술이나 다른 음식들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나오게 된다.

왕자의 책봉과 공주를 시집보낼 때도 진차 의식이 이었다. 이처럼 차 의식은 복잡한 형식이 있기보다는 술, 과일, 음식이 나오기 전에 차를 올리는 의식이었다. 조정에는 이러한 절차를 관장하기 위해 다방(茶房)이라는 관청을 두었다. 다방은 주로 종묘제사나 외국 사절단을 맞이하는 일, 각종 의례 및 연회 등을 관장했다. 행로(行爐), 다담(茶擔), 군사(軍士)등이 있어 행사를 주관했으며, 지다방사(知茶房事)라는 책임자를 두어 다방을 관리했다.

연등회나 팔관회 같은 국가의 큰 연중행사에는 외국사절단이 참석을 하기도 했다. 중국 사신 서긍(徐兢)은 팔관회에 직접 참석을 했다. 서긍은 "한국의 토산차는 그 맛이 쓰고 떫어서 입에 넣을 수 없으니 오직 중국의 뇌차와 용단차를 귀하게 여긴다"라 한 것으로 보아 중국 차만이 아닌 우리의 토산차가 의식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는 왕이 하사를 하거나 상인들을 통하여 판매가 된다"고 <고려도경>에서 밝히고 있다. 고려의 차는 왕실에서만이 아닌 민간에서도 널리 마신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유학승들이 중국에서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차가 사찰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고 사찰의 필수품이 된다. 산간의 작은 사찰은 직접 차를 재배하기도 했지만 큰 사찰들은 주변의 가까운 마을에서 차를 재배하도록 해 공급받았다. 사찰 주변에는 차를 재배하는 마을인 다촌(茶村)이 형성되었다. 품질이 좋은 차는 사찰과 왕실, 관리들에게 상납되었다. 특히 사찰에는 다각(茶角)이 있어 차와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하였다. 승각(僧角)또는 다동(茶童)이라고도 불렀다. 주로 승려가 되지 못한 어린이들이 사찰에서 기거를 하면서 차에 관련된 심부름을 했다. 고려 중기 이후에 관청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사노(寺奴)를 데려와 그들이 승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고려시대 사찰의 차 문화는 한국 차 문화의 명맥을 이어오는 줄기가 된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일주일 철야 정진법회 안내



본 보림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계 철야정진 법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확철대오 하신 후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펴실 때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으며 입적 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훈에 따라 제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돌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인들이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어 많은 공부인을 양성하셨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은 백봉선생님의 육성법문과 불교공부의 바탕마련을 위한 교재로써 공부하며 선생님의 도반이시자 제자이신 보림사 회주 묵산스님께서 지도 해 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7년 7월 26일(목) 오후 8시부터
2007년 8월 1일(수)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4동 약수길 17-1호)
■ 회 비 : 일반 9만원
■ 연락처 및 문의처 : 017-332-4096 / 02)914-6187
■ 준비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 하차 정릉 청수장행
버스(143, 162, 1012, 1013)
대우아파트 하차(돈암역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 산 합장
보 림 회 회장 장철순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북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해발 1080미터, 탁트인 공간 풍부한 식생…“무궁한 절경”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80) 수도산 수도사

‘…산세를 둘러보니 사방 어느 쪽도 공결이 없고 지세가 높고 확 트인데다 절터가 반듯하며 가야산으로 안산을 삼고 있었다. 봉우리에 흰 구름이 자주 걷히기도 하고 덮이기도 하는 모습을 앞문을 열어 놓고 하루 종일 마주하고 있었더니 의미가 무궁하였다. 참으로 절경이라 하겠다.’

조선 후기 정시한(鄭時翰)의 <산중일기(山中日記)>는 그가 3년여 동안 전국 고찰을 순례하고 남긴 흔적이다. 당시 사찰의 자연환경과 가람 모습, 여러 스님들 이야기는 사료적 가치가 상당하다.

윗글은 그가 김천 수도사(修道寺)에 하루를 유숙하며 수도산(修道山)의 정경을 예찬한 부분이다. 그의 예찬을 마음속에 그리며 수도사를 찾아 나섰다.

수도산에 절이 처음 들어선 것은 통일신라 말. 도선 국사가 이 산중에 쌍계사, 청암사, 수도사 등 세 절을 차례로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쌍계사는 한국전쟁 통에 사라지고 청암사와 수도사만 남았다.

김천에서 대덕을 지나 아흔아홉구비 가랫재를 넘으면 청암사 가는 길이 있다. 수도사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잠시 들렀다. 청암사 주변은 원래 적송이 많았으나, 건축재로 나가고 지금은 못난 소나무만 절을 지키고 있다. 임상에는 다음 세대 적송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 청암사 적송은 지금 대가 끊어지고 있다.

청암사를 나와 수도사까지는 자동차로 10분 거리. 마을 길가에 우람한 당산나무와 서낭돌탑이 있다. 당산나무는 수령 100년 정도의 전나무인데, 아래 줄기에 오소리굴 같은 구멍이 나 있어서 인상적이다.

사하촌에서 수도사까지는 경사가 있는 숲길이다. 왼쪽으로 계곡이 함께 하지만, 규모도 작고 수량도 넉넉하지 않다. 서식하는 어류도 버들치와 갈겨니에 한정되어 있고, 개체수도 많지 않다. 다만, 용소폭포에서 청암사 구간의 계곡에서는 동사리, 자가사리, 돌고기 등이 관찰된다.

계곡 바닥에서 발견한 굵은줄나비는 길이가 7센티나 되는 검은 날개 중앙에 굵은 흰줄이 가로로 나 있다. 숲이 있는 계곡 주변이나 산간마을의 낮은 산지에서 많이 관찰된다.

그 밖에 별박이세줄나비, 거꾸로여덟팔나비, 외눈이지옥사촌나비, 산호랑나비, 긴꼬리제비나비, 홍점알락나비, 큰줄흰나비, 작은주홍부전나비, 뿔나비, 흰줄표범나비, 굴뚝나비 등이 관찰되었다.

시멘트길만 아니면 산책하며 걸어도 좋을 숲길이 주차장까지 나 있다. 계곡숲은 듬성듬성 노송도 보이긴 하지만, 주로 참나무류를 비롯한 활엽수들이다. 함박꽃나무, 고광나무, 들메나무 고로쇠나무, 비목나무, 노각나무, 노린재나무, 단풍나무,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때죽나무, 미역줄나무, 초피나무 등이다. 이 가운데 고로쇠나 들메나무 등 몇 종의 나무들을 빼고는 계곡에서 멀리 떨어진 산에서도 관찰된다.


수도사 주차장 해우소.

함박꽃나무는 ‘산목련’이라고도 부르는 낙엽활엽 소교목이다. 습기가 적당하고 비옥한 반음지를 좋아한다. 꽃은 매일 피고 지는데, 모양도 수려하거니와 향기가 좋다. 줄기와 가지는 회색빛이 도는 황갈색이고, 잎은 어긋나게 나 있다. 꽃은 양성(兩性)으로 초여름이 제철이다. 6매의 흰꽃잎 속에 붉은 수술대와 꽃밥이 인상적이다. 사찰 조경수로도 품격이 있다.

주차장 한 켠에 몸집이 큰 해우소가 점잖게 앉아있다. 수도사 해우소는 중층 다락형 구조의 전통해우소이다. 위에는 판벽을 친 용변칸이 있고, 아래는 변조


수도사 숲길.

관음전 뒤 계류 막아 물 저장, 유사시 방화수 역할
중층 다락형 전통해우소 생명의 순환시스템 갖춰
남녘 동백숲에서 볼 수 있는 동박새 발견 ‘놀라워’

칸이 있다. 용변칸에서는 화장지 대신 왕겨가 비치되어 용변 후 왕겨를 변조에 뿌리도록 되어 있다. 소변은 소변기에서 따로 받아내고 있다. 수분이 증발된 분(糞)은 변조칸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 건비(乾肥)가 되어 농작물의 밥이 된다. 전통해우소의 생태적 가치는 ‘음식→분(糞)→거름→음식’이라는 생명의 순환 시스템으로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데 있다.

관음전 석축은 몸집 큰 막돌로 쌓아서 눈맛이 무겁고 거칠다. 그것을 담쟁이, 푼지나무, 줄사철나무 등 덩굴식물로 가볍게 가려놓았다. 푼지나무는 덩굴식물로 바위나 큰 나무에 기어오른다. 회갈색 줄기에는 털이 나 있고, 5미터까지 뻗는다. 이 줄기와 가지에서 지네발 같은 기근(氣根, 공기뿌리)이 나와서 바위를 붙잡고 있다. 꽃은 초여름에 피는데, 색깔은 황록색이다.

대적광전으로 오르는 돌계단 주위로 불두화(佛頭花)가 탐스럽다. 꽃의 모양이 나발불두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꽃이 피고, 암수가 없는 무성화(無性花)라는 점에서도 불교 이미지가 강하다. 사찰에서 많이 심지만, 인도 등 아열대에서는 볼 수 없는 온대북부지역의 나무이다.

수도사는 산의 8부에 자리해 있어서 물이 귀한 편이다. 관음전 뒤로 실낱같은 계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를 막아서 물을 저장해두었다. 유사시 방화수(防火水)로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그 계류 옆에 2층 시멘트 슬레이트 요사채가 있는데, 몸집이 너무 커서 수도사의 흉물이 되어버렸다.

수도사가 앉은 고도는 수도산의 8부인 해발 1080미터라고 한다. 대적광전과 약광전 앞마당에 서면 좌청룡과 우백호가 뚜렷하고 안산도 부드럽다. 안산 너머 연꽃처럼 핀 가야산 흰 봉우리가 감동으로 다가온다. 도선 국사가 청암사를 창건한 뒤 이 절터를 발견하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사흘 동안 춤을 추었다는 전설이 조금도 허사가 아니다.

대적광전과 약광전에 모셔진 불상은 모두가 석불이다. 전설에 따르면,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은 산너머 거창군 가북면 북석리에 있던 것을 모셔왔다고 한다. 수도사 주변은 육산이라 큰 불상을 새길 만한 바위가 없지만, 산 너머 남서사면 쪽에는 질 좋은 화강암들이 많다. 따라서 이 전설은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

해발 1000미터가 넘는 이 산중에 텃새 동박새가 서식하는 것이 놀랍다. 따뜻한 남쪽 바다 동백숲에서나 볼 수 있는 동박새가 대적광전 앞 단풍나무 주변에서 관찰된 것은 경내 어딘가에 보금자리를 틀고 새끼들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동박새는 참새만한 크기로, 몸 색깔은 황록색이며, 배는 희고 턱 밑은 노란색이다. 눈 주위에 둥근 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꿀을 빨기 편리하게 혀끝에 붓모양의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호색을 띠며 주로 상록 활엽수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다.

선원을 지나 푸른 지붕을 한 토굴 주변에서 개불알꽃 등 몇 종류의 야생화가 수줍게 꽃을 피우고 있다. 개불알꽃은 30센티 가량의 줄기에 초여름이면 붉은 자줏빛 꽃이 줄기 끝에 1개씩 피는데, 입술꽃잎이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어서 ‘복주머니꽃’이라고도 부른다. 주로 높고 깊은 산속에서 피는데, 수도사의 지표종으로 삼을 만한 꽃이다.

수도사 주변은 다른 절에 비해 야생화들이 다양하고, 귀화식물들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다. 그만큼 생태계가 양호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6월초 수도사 경내외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야생화로는 쥐오줌풀, 광대수염, 기린초, 꿩의다리꽃, 며느리밥풀, 노루오줌, 바위채송화, 산수국, 원추리, 하늘말라리, 애기똥풀, 가시엉겅퀴, 꿀풀, 할미질빵 등이 있다.

수도사에서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은 완만하다. 능선에 올라서면 경사가 느린 숲길이 좌청룡과 우백호로 갈려진다. 이 숲길은 수도사 스님들의 포행길이기도 하다. 곳곳에서 수도산의 임해를 보는 즐거움이 있다. 나무들의 수령은 평균치가 30년 정도, 청년숲이다.

수도산 식생은 가야산국립공원과 유사하다. 가야산과 마찬가지로 상록활엽수가 관찰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온대중부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활엽수들이며, 침엽수로는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소나무로는 수도산의 마지막 세대인 노송들이 군데군데 자리하고, 식재된 잣나무들이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전나무는 주로 수도사 주변에서 관찰된다.

초여름 꽃을 피우는 목본류로는 함박꽃나무, 층층나무, 고광나무, 고추나무, 국수나무, 노린재나무, 물


함박꽃나무.


동박새.


개불알꽃.


불두화


굵은줄나비.


천연와불의 성지 지리산 견불사
지리산 깊은 골짜기, 천년을 이어온 와불의 정기…
그 속에서 소리 없이 피어난 수행의 향기가
이 한권에 담겨 있다.

백련의 향기 속으로…
중생들의 사사로운 사랑과 이별, 그리움 등의 정서를 넘어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품어 안는 마음으로 써 내려간 주옥같은 시편들이 읽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해 주는 듯 하다. – 충청매일

꾸밈이 없어 담백하고 순박한 시편 하나하나의 행간엔 대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자비심이 흠뻑 깃들어 있다. – 법보신문

시편을 읽다보면 눈에 띄는 것은 소재의 무궁무진함이다. 먼지 같은 인연 하나도 모두 영으로 기록하고 있는 시를 읽다보면 전생과 인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게 된다. – 동양일보

지리산자락이 보여주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내 마음에 존재한 부처를 발견하는 만행의 기쁨을 책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 새충청일보

백련잎에 청개구리
http://cafe.daum.net/joungsimboduk

‘불자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도량을 세우리라’는 사명감으로 사부대중이 손수 돌을 골라내고 축대를 쌓아 올려 일구어낸 10년 대작 불사의 정진 속에서 떠오르는 단상들을 옮겨 적은 것이 그대로 시가 되어서 일까. 어떤 시적인 정형성 보다는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3인칭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묘한 감동을 일으키게 하며, 정겹고 풋풋한 언어의 조합은 수행이라는 연마를 거쳐 마무리된 잘 다듬어진 주물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



정심보덕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119쪽 / 값 10,000원
판매처 지리산 견불사(실상선원)
Tel 055)962-3931 / Fax 055)962-3920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붓다북(www.buddhabook.co.kr)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비디오 법문 듣는 것에 대해서

문 요즘은 스님께서 직접 법상에서 법을 설하시는 대신 비디오를 통하여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계신 신도님들이 새벽부터 본원에 와서 법문테이프를 직접 청하여 듣는 것과 지방 같은 경우 그냥 선원이나 가정에서 비디오 법문이나 카세트를 통하여 듣는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답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답하기 이전에 내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 테니 잘 음미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하는 사람들이 권투를 서로 하는데 이쪽은 이쪽대로 상황에 따라서 때리지, 정해 놓고 때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쪽도 정해 놓고 맞는 데가 없습니다. 정해 놓고 때리고 정해 놓고 맞는 데가 없으니 그 가운데 뭐라고, 누가 맞았고 누가 때렸고, 어딜 때렸고 어딜 맞았고 이거를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비디오로 보든 그냥 이렇게 실제로 듣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들의 환상이 진짜, 진짜입니까? 그것은 환상 놀음입니다. 컴퓨터에서 눌러서 놀이를 하는 것도 환상입니다, 그게. 근데 환상인데, 왜 환상이 아니게 보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느냐 하면, 그거는 댁의 몸이나 내 몸이나 몸은 공체(共體)입니다. 환상이란 말입니다. 환상인데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어느 놈이 때린 거냐? 어느 놈이 어딜 때렸느냐? 어딜 맞았느냐?' 그것을 음미해서 생각할 때 때린다고 하고 때리지도 않았고, 맞는다고 하고 맞지도 않았고, 어딜 때린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때린 사이도 없고 맞은 사이도 없는 거죠.

비디오를 본다고 해도 비디오를 보실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불이 들어오고 생각을 안 하면 생각 안 하는 대로 불이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안 하면 모르지만 그 실체에도, 거기도 내가 있고 지금 여기도 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 자체가 환상입니다. 이것도 환상, 그것도 환상. 그런데 댁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천이, 실지가 되는 거죠.

'과거도 현실로 봐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이 컴퓨터에서 놀이하는 거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왜 관하라고 했느냐? 당신들이 살기도 어렵고 괴롭고,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살아야만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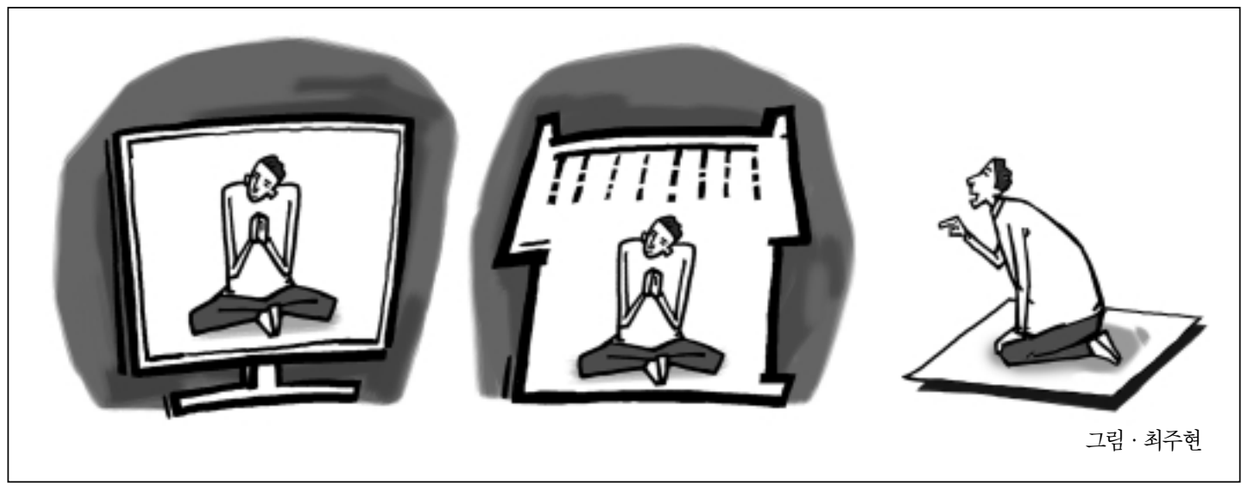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모습은 부모의 인연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만 생명의 능력은, 생명력은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원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습이 생기면 바로 모습 아닌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되겠죠. 그게 '불성(佛性)'입니다. 그것이 천차만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바로 절대적인 에너지처(處)입니다. 그래 주처(主處)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처를 자기가 각각 그렇게 영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몸도 공체(共體)고, 공체이기 때문에 속에 제각기 모두 분리돼서 작용을 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뚱이 속도 한 지구와 같기도 하고 우주와 같기도 하다 이런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하고, 누가 고통을 받고, 누가 그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당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모습 있는 자기는 모습 없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된단 얘깁니다. 진짜로 믿어야 태평해지죠. 진짜로 믿어야 갖다 맡겨도, '너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맡겨도 그게 진짜로 실천으로 옮겨지고, 법이 땅에 한데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공법(空法)으로서 공용(共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바대로 텔레비전을 보나, 누구에게 들으나, 지금 여기서 들으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커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육조 스님은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서 거기에서 깨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읽는 소릴 듣고. 그러니까 남이 읽는 소리나 하는 소리나 내가 지금 하는 소리나 뭐가 다릅니까?

새록새록 다른 말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데는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 그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하고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하죠. 못 쓰죠. 말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말을 못하죠. 또 사용하는 것도 마음대로 사용치 못하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있어요? 마음대로 하려면 그대로 자기의 실체를 그냥 알아야 되겠죠. 그게 어렵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냥 자기한테 원소가 들어 있으니까요. 자기가 있으니깐 들어 있고요. 그 원소가 없으면 자기는 송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누구를 대신 살아 줄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요. 먹고 자고 행하는 것을 도무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이 걷고 여러분이 행하시라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걸랑은 같이 공부해 나가시는 분들끼리 서로 토론을 자주 하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너만이 알게 해 줄 수 있어!' 하고 자기 불성, 주인공을 자꾸 찾아보십시오.

세상일에 무관심해지는데…

문 요즘은 일상생활에서나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근본을 믿고 주인공에 관하면서 생활을 하니 저 개인으로는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걱정거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이나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주변 일들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일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답 편안하니깐 그러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하면서 '더러운 물도 바꿔 쓸 수 있다.' 하는 건 이건 한 찰나입니다. 이 마음이란 것은 한 찰나에 그 모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놓으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면서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바꿔지는 겁니다. 바꿔지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지니까, 편안하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정도가 되죠.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지, 바쁘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써 원소를, 자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모습을 받는단 얘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받는 데에 부모의 은공으로 받았다 해서 『부모은중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원소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화하고 형성되는 그 고생은 모르죠. 즉 말하자면 태어나는 거는 자기 소관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부모의 소관이 아니라 자기의 소관이란 말입니다. 차원이 높고 낮고 그런 것도 자기의 소관이죠, 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습 있는 인연을 따라서 소중한 모습을 받은 그 모습으로 나오게 한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 그건 바로 즉, 만법을 행할 수 있는, 색색 가지로 만법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다 이런 말입니다.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를 부처님께서는 '별성'을 봤다고 했고 또 불가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주장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서, 잘하면 한 등 올라가고, 올라감이 없이 올라가고, 우리가 문을 찾을 때 지혜롭게 찾아야 문 없는 문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문을 찾아다니는 건 육신을 가진 사람이나 문을 찾아다니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문이 없어도 그냥 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 원소 자체의 불성은 문이 없어도 왕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난이 "형님, 내가 형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니까 가섭 존자의 말이 "너 그렇게 들어오고 싶으면 열쇠구멍으로 들어오너라." 이랬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올 수 있으면 열쇠구멍으로 들어왔다가 가라 이겁니다. 열쇠구멍이 문도 될 수 있는 거라면 이 봇장이고 벽이고 그런 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50%를 즉, 정신계로 활용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지금 원소는 정신계를, 왼쪽 두뇌의 정신계를 말하고 또 바른쪽은 물질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혼합시켜서 이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같이 돌아가는 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이지…. 예전에 청담스님이 대자대비라고 '대'자 둘을 이렇게 써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대'자 둘을 써 놨으니까 대자비죠. 대자대비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걸어갈 뿐이야. 그냥 길을 하나, 이렇게 주장자를 그려 놨거든요. 누운 주장자, 선 주장자가 있거든. 누운 주장자를 그려 놨으니 그대로 갈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대자대비도 그렇게 앞도 없고 뒤도 없다. 대자대비니까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와선이니까, 누운 주장자니깐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냥 걷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머리에 하나의 지혜가 트이면 열 가지 백 가지가 트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든 들이대면 그게 법이 되고, 어떤 것이든 들이대면 그대로 결

☞22면으로 계속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들일수록 꼭 읽어야 할 인생 지침서



부처님의 눈으로 주역의 도를 읽고
주역의 눈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본 『주역선해』,
유불선을 30년 동안 연구한 이둔 박태섭 선생이
7년여의 노력끝에 내놓은 역작

공자가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지도록 탐독하였다는 주역은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가 담긴 동양철학 분야의 가장 오래된 고전이다. 이 책 주역선해는 명나라 4대가 중의 한 분으로 존경받는 지욱 선사가 유식(唯識), 천태학, 선(禪) 등 해박한 불교지식을 총동원하여 불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의리역(義理易)의 명저로 불교와 유교 양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로 주역이 안으로는 성인의 마음을 밝혀가며 밖으로는 제왕의 정의로운 통치를 돕는 것이라면 주역선해는 거기에다 깨달음의 영성(靈性)을 더한 것이다.

"『주역선해』는 워낙 난해하고 방대해 유불선에 통달했던 탄허 스님만이 토를 달았을 뿐, 일반인을 위한 번역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에는 무려 1262개의 상세한 역주를 달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돕고 있다. 탄허 스님의 제자인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추천사에서 이 책에 대해 '진짜 우담바라 꽃이 핀 것과 다름 없는 경사'라고 평했다"
– 한겨레 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 연합뉴스, 매일경제, KBS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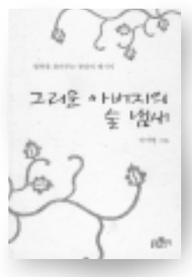
지욱(智旭) 선사 지음
이둔(理屯) 박태섭 역주
신국판 양장본 944면
값 75,000원

이둔(理屯) 박태섭 – 1957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밀양박씨 청재공파(淸齋公派)의 22세손으로 15세부터 송화산, 송을산, 김추당으로 이어지는 한학의 계보를 이어받았다.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서강대에서 종교학을 전공하였다. 코리아 헤럴드에서 전임강사를, 전 세세정보통신(주)에서 이사를 역임했다. 대표저서로 『주역을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소설 기문둔갑』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원시불교』, 『고전인도논리철학』, 『도인』, 『불교심리학』, 『고타마 붓다의 생애』, 『카발리』, 『기하학의 신비』, 『무위경영』, 『리보위초를 위한 찬가』 등이 있고, 논문으로 「중국종교사의 철학적 해석을 위한 탐색」 외 10여 편이 있다. 이 책 주역선해는 유불선 경전 탐구 30년, 번역과 상세한 각주에 7년의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맺은 결실이다.

도서출판 한강수

– 행복을 찾아주는 붓다의 메시지

그리운 아버지의 숲 냄새



이미령 지음
4 · 6판 232면
값 7,000원

경전의 바다에서 낚아 올린
생생한 부처님의 말씀으로 삶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저는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이 책의 지은이가, 달도 별도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밤의 울퉁불퉁한 골목길을 앞장서서 가면서, 초롱불을 비춰 주며 행복이라는 집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말로 이 책의 내용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 소설가 한승원

불광출판사

송파구 석촌동 165-14, 전화 (02)420-3200, http://www.bulkwang.or.kr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월간 불광을 만나면
삶이 밝아집니다

33년 한결같은 도반 월간 「불광」은
우리의 일상을 빛으로 밝히며,
우리 시대의 밝은 횃불이 되어왔습니다.

http://www.bulkwang.org

1 년 구독료 : 38,000원
2 년 구독료 : 70,000원
3 년 구독료 : 100,000원

구독문의 02) 420-3200 팩스 02) 420-3400
e-mail : webmaster@bulkwang.org

모습 있는 자기는 모습 없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21면에서 계속

정이 나고, 어떤 것이든 들이대면 그냥 활용이 되는 겁니다. 꼭 육체가 강을 건너가는데 한 걸음에 강을 떼어 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을 떼어 놓을 때 한 걸음을 떼어 놔야 우리가 그 부처님 자리에 한 도량에 든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으로, 한 강을 한 걸음으로 떼어 놔야 한 도량에 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 조금도 정신계의 문제나 물질계의 문제나 같이 반반 섞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간다. 그런데 모두 물질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든지 그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 자기 모습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 자기가 결정을 짓지 말고 모든 걸 주인한테, 주처한테 맡겨 놔라. 그러니까 일할 때는 행선이고, 앉았으면 좌선이 되고, 또 길거리를 다닐 때는 입선이 되고 누웠을 때는 와선이 되느니라. 그것이 조금도 그른 사이가 없이 요만큼도 틈이 안 나게끔 돼 있는 자체다. 그게 그냥 참선이다, 여러 가지로 따질 게 없이. 참선이니까 우리 생활이 그냥 '도'니라. 우리 생활이 그냥 '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 생활이 도지, 우리 생활 떠나면 뭐가 있느냐? 너가 떠나면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모두 각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종교도 있다느니 진리도 있다느니, 부처도 있다느니 세상도 있다느니, 에고도 있다느니, 또 편안함도 있다느니 이런 게 모두가 필요한 거죠.

장기 기증에 대해서

문 요즘 고도화된 과학으로 유전자 조작을 이용해서 생명체를 복제하고 질병을 치유하는데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이 치유됐을 때, 치유되기 전의 그 업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요즘 뇌사자의 장기 기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였을 때, 장기 기증자가 강도나 또는 살생한 업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 업식보다도요, 업식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몸체를 볼 때에, 육등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육등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세포가. 다르니까 팀들이 다르단 얘기예요. 팀들이 다르니까 아, 생김생김도 다른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포를 가지고서, 유전자를 가지고서 사람 병 치료를 한다 이래도 그 유전자의 의식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딴 데 있던 그 유전자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그 짓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튈 줄도 몰랐던 사람이 아주 뜀박질을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수술을 할 때 그 유전자를 넣고 다리 부러진 그 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뛸까요? 그 유전자는 차원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조금 생긴다는 얘기죠. 결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 좋지 않은 거는 모르지만 좋은 거는 지금 말해서 장땡이죠, 뭐. 좋지 않은 거는 또 좋지 않은 대로 세세생생에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좋은 거 반이라면 언짢은 거 반이 거기 속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대로 거기다 이식을 했다면 즉, 죽은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발전이 돼서 거기로 옮겨졌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자동 컴퓨터에서 지워진다면 별 문제지만 지워지지 못한다면 그건 대대로 내려가죠. 문제가 대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가는 거를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제거할 수 있다. 좋든지 나쁘든지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승화시키고 나쁜 거는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두뇌에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돼 있습니다. 입력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입력이 돼 있어서 현실에 나오는 거를 반드시 나올 때 거기다가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이 들어가는 대로 나온다 이런 소립니다.

> 우리 자체가
> 바로 불성 자체,
> 별성의 근본이기 때문에
> 에너지통이
> 바로 자기 안에
>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공식(共食)으로서 공용(共用)으로 이걸 싸잡아서 해결을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자기부터 알아서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 생명체들의 생각들도 조절해줄 수 있는 능력이 첨부가 돼야 할 겁니다. 그러니 자기 먼저 알아가는 이 공부를 열심히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키우려면

문 요즘의 세상은 정보를 뺏기고 뺏는 시대입니다.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새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자기들끼리 교환을 하면서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까지 리드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컴퓨터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족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더욱 내 안의 에너지를 키워서 벗어나는 이 마음공부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내 마음의 에너지통을 키워서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뺏기거나 휘둘리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이익을 주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요?

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를 완전히 알아야만 되겠다 이겁니다. 조그만 거, 이렇게 부실한 거 가지고서 논의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누르고 삽니다. 그렇듯이, 우리 자체가 바로 불성 자체, 별성의 근본이기 때문에 에너지통이 그냥 여기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작으나 크나, 차원이 높으나 낮으나 그거를 알고 진행한다 하면 그냥 자기가 자꾸 크게 만드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쉬우면 꺼내 쓸 수 있는 거, 전력을 그냥 꺼내 쓸 수 있는 거. 그것이 에너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구 바깥에,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내 자체 내에 그 문이 있기 때문에, 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암흑 속에는 에너지를 발현할 수가 있고 이 거죽에 속하는 데는 에너지를 발생해서 쓸 수 있는 데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눌렀을 때 이걸로도 변하게 하고 이걸로도 나오게 하고 저걸로도 나오게 하고, 부산으로도 갔다가 제주도로도 갔다가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컴퓨터에 하는 사람들이 남한테 뺏길 필요도 없고 뺏을 필요도 없이 아주 성스럽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지금은 악과 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싸우게 해서 재미를 보게 모두 했거든요. 그러나 악과 선을 안 넣어도 재밌는 구절이 구절구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미생물로 인해서 조그맣게 생명이 생겨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진화가 되고 사람까지 몇 번씩 태어나도 그냥 그 자리를,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세생생,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안에서 벗어난다면 세세생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갇혀서 우리가 산다고 보세요. 병 속에서 갇혀서 산다 이런다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함을 느끼죠. 자유스럽게 훨훨 날아다닌다면, 구속받지 않고 날아다닌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거를 내가 갖는 거보다도 모든 걸 주는 거, 주는 새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이지 그건 천국이죠. 자연적으로 천국이 되죠. 왜냐하면 요만한 애들도 그렇고, 이만한 애들도 그렇고, 늙어도 그렇고 다 천국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날까지 그렇게 궁색하게 싸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뺏고 뺏어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계까지 뺏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뺏고 또 뺏기고 이러지 말고 서로 줄 수 있고, 서로 받을 수 있고, 서로 주지 않고도 살 수 있고….

이 사람이 먹는 걸로 인해서 더군다나 더 싸워지는 문제도 있죠. 먹는 걸로 인해서 싸우고 죽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게 활짝 벗어난다면 먹고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에너지가 왜 필요한데요?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송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라고 이름을 해 놨으니까 그냥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진리라는 거,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지구가 만약에 버스라든지 배라고 한다면 그런 데에 걸상을 전부 늘어 놨다면 그 걸상 하나 가지고 이거는 무슨 종교 이거는 무슨 종교 이러고서 싸우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거는 이름이지, 그 종교가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떠한 말로든지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진리, 진리를 우리는 숭상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린 진리에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나왔고 진리에서 진화가 됐고 진리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융통성 있는 인간으로서 이게 발전을 했으니까요.

> 자기 모습은
> 심부름꾼에
> 지나지 않으니
> 자기가 결정을 짓지 말고
> 모든 걸 주인한테,
> 주처한테 맡겨 놔라.

인간이라 할지라도 진짜 인간으로서 활짝 벗어나진 못했다 이런 소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나라 그러고 그렇게 그냥 당치 않은 어깃장을 부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따진대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거듭거듭 고생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40이 넘고 50이 되더라. 50이 돼서 '애들하고 어떻게 좀 살아 봐야지.' 하고 살다 보니까 머리가 벌써 허옇게 늙었더라. 이러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그냥 에너지로다가 그냥 원소가 있었다면 그렇게 구석구석 모를 텐데 부모의 은공으로서 몸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너는 몸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모두 살아나갈 때 어떻게 어떻게 살아나가며, 어떻게 서야 되며,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어떻게 누워야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알아라.' 하고 했는데 눕는 것도 잘 모르고 앉는 것도 잘 모르고, 일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자는 것도 잘 모르더라 이런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걸 알아야 하는데, 죽기 전에 알아야 하는 거지 죽은 뒤에 내가 공부가 되느냐 이겁니다.

부딪침이 있어야 공부가 되죠. 서로가 있어야 공부가 되죠. 그래서 죽은 영(靈)들을 왜 탑에다 모셔놓든가 그렇게 해 놓고 공부를 시키게끔 하느냐. 우리 자손들이 화장을 시켜서 탑에다 우리를 그렇게 모신다면 그 자손들이 공부하는 대로 그걸 배울 수 있으니깐 말입니다. 잠시잠시 들고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냥 병 속에서 나가듯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자손들이 그거를 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생전에 벌써 병을 다 부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갈 때도 나가는 문이 없고 들어올 때도 들어오는 문이 없더라.

그러니까 자재권이라는 것은 나한테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재하더라.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어디든지 권리가 있다. 어디든지 가서 같이 할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가서 분류할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가서 이거는 바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색상을 바꿀 수가 있다. 모습을 바꿀 수가 있다. 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는 바꿀 수 있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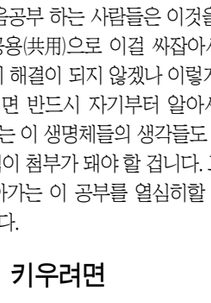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막말로 뱀이다 개구리다 뭐 다른 짐승이다 이렇게 할 때 서로 접촉도 안 해 봤는데 사람이 거기 탁 들어가 보세요. 저항력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쪽도 아주 겨냥을 단단히 하고 그렇게 저항력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떤 걸로든지 건지려면,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될 수 있어야 하고 너는 어떤 거든지 건질 수 있어야만 된다. 여자가 되면 여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되고 창녀로 있는 거를 건지려면 창녀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창녀 속에 들어가서 창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젭니다. 그러니 그게 말이 그렇지 수가 없는 거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닥치는 대로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걸 복잡하게 듣지 마시고요, 좀 간편하고 쉽게, 그냥 쫀쫀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느슨하게 풀어 놓으시고, 허리띠를 너무 꼭 매면 체하기도 쉬우니까 조금 느슨하게 헐렁하게 좀 매 놓으시고, 흘러내리지만 않게 하시고 사신다면 그게 얼마나 유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이지 허리띠를 꼭 매고 일을 할 때는 꼭 매야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죠.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생활 활용 CD

전문가용 하락리수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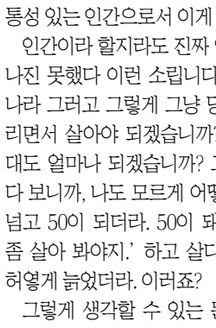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사주 간지와 선천운 후천운을 즉시 확인함은 물론
12조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운에 이어 대상운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참평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풀이입니다.
아울러 토정선생의 토정수를 활용한
토정괘(384효 또는 144효)를 얻어서
실제 년운에 대입해 봄으로써,
하락이수 년운과 비교해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9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오운육기,궁합, 육효, 인쇄 가능

전문가용 자미두수 CD

삭망일 균시차 인명저장 등
각 학설에 따른 옵션기능과,
자미두수 성요에 대한 각 서적의 내용
앙라한 설명기능,
대한 소한 태세 월건까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미두수의 특성상 종합적인 운세풀이
설명은 없습니다.
기문과 육효의 포국보조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자세해졌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김재윤,
2006년 3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명리, 기문, 육효, 육임의 명반, 인쇄 가능

전문가용 육임 CD

삼전조식된 육임식반과 더불어
9종 10과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육임공부를 할 수 있고,
720과에 대해 총운 공명 가정 행인 투자 등
각 25개 항목으로 나누어
육임점의 가부길흉이 단답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임입문 123의 번들 CD를 보완하였습니다.

※ 가격 1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6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기문 명반

하락리수와 자미두수를 함께 구입하시면 전문가용 육임 cd를 드립니다.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윤상철)
www.daeyou.net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해외여행, 가는 만큼 오게하라

올 추석연휴는 길어서 잘 하면 거의 일주일을 놀 수도 있다. 그 추석 연휴 때문에 벌써 시끄러운 곳은 어디일까? 귀성열차 예매?

아니다. 요즘 추석연휴를 고향에 내려가 보내려고 작정하는 기특한 사람은 해마다 줄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사람들의 시선은 해외로 향해 열려있으니 해외여행 항공권 예매가 벌써부터 달아올라 있다. 지금 예매해 두지 않으면 긴 연휴를 후회로 보낼지 모른다.

해마다 세계인구 한 사람이 한 번의 해외여행을 한다는 통계숫자도 있고(물론 1년에 여러 번 여행 다니는 사람들 숫자 때문에 그렇다), 한국도 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1년에 한 번 해외에 나간다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 해외여행은 이제 일상 속에 스며든 일상사가 된 것일까?

그러니 해외 여행지에 나가 보면 어디서나 한국인과 만나게 된다. 해외여행이 드물었던 옛날이라면 만나서 서로 반가운 인사라도 했을 것이지만 요즘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는 모양이다.

더욱이 '해외여행이라고 다 같은 해외여행인가?' 식의 여행 패턴과 계층도 구분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서로 외면했던 사람들이라면 해외에서 부딪쳐도 외면하게 되고 때때로 몰상식하다 싶은 한국인을 만나면 슬쩍 피해 버리기도 한다.

그동안 값도 비교적 싸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 왔던 여행사 패키지 투어도 이제 '주마간산'이 아닌 '천천히 오래' 각자의 취향과 깊이에 맞는 주문 식 여행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해외여행도 선진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발길이 덜 닿은 보다 궁벽진 곳, 모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새로운 여행지로 인기를 얻는다. 보다 괴상하고 엽기적인 것을 찾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어느 방송사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 사하라 사막의 베두인족에게 느닷없이 낙타오줌으로 세수하는 장면을 찍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 한다.

문화 선진국인 한국이 아직 원시적인 부족을 취재한다는 오만에 빠졌던 모양이다. 베두인족은 모래로 세수를 할망정 낙타 오줌으로 세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여행객이 해마다 늘고 이에 따른 수많은 일화들이 생기고, 패턴 역시 다양화 고급화되는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이를 사치스런 소비행태로 치부하려 한다.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가 8백50만 달러에 달한다는 수치를 놓고도 '외화낭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어떤 패턴, 어떤 수준의 여행이든 개인적으로는 값진 투자다. 성숙이란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며 해외여행은 그런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한다. 이런 것들이 모이면 국가적으로도 자산이 된다.

해외로 사람들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외국인을 불러들이면 될 일이다. 관광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이며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지금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최우선 순위로 장려하는 산업이다. 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석 해외여행 예매가 벌써 불붙고 있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라의 관광산업을 먼저 배워올 일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한번 못해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들을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귀띔 하면.

세계적인 철학자 칸트는 평생 그가 태어난 마을 이외에는 한번도 나가 본 적이 없지만 선사(禪師)들의 깨우침에 비교되는 선험철학으로 지금도 인류를 깨우쳐 주고 있다.

불자의 눈

회향의 참 모습 보인 현응스님

수행자(스님)에게 돈은 어떤 것일까? 부처님은 물욕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가르치셨다. 본질적인 욕망을 끊지 않고는 절대 진리에 계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행자라면 물욕을 끊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수행자에게 돈의 가치는 '끊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최근 수행자의 자리에서 돈을 지혜롭게 잘 쓰는 스님의 이야기를 접하고 마음이 훈훈했다. 부산 영일암의 현응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현응 스님은 최근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그리고 불교TV에 각각 1억원을 희사했다. 스님이 희사한 돈이 사찰 인근의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보상비라고 한다. 전통사찰의 일부 스님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재 수리비용을 횡령하거나 전용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현실과 매우 대조적이다. 외형적인 불사에 여념이 없는 스님들에게도 불사의 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더구나 현응 스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근의 학생들과 형편이 어려운 환자 돕기에 발 벗고 나섰으며 승용차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니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우리 주변에는 돈이 많은 스님도 있고 돈을 잘 못 쓰는 스님도 많다. 수행자에게는 돈을 쓰는 것도 수행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행은 범부중생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으로 회향되어야 할 것이다. 현응 스님처럼 말이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증언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E.H 카아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역사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연속선 위에서 규정된다. 일제강점기가 남긴 아픈 역사는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그 아픔도 시간의 흐름을 따라 잊혀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한다. 세대가 바뀌면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역사를 인식하는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가 20일 전주여고 700여 학생들 앞에서 일제의 '종군위안부 만행'을 증언했다. 자신이 역사의 폭력에 무방비로 당했던 그 나이의 어린 후손들 앞에서 차마 떠올리기도 끔찍한 과거를 증언한 것은 '있었던 일'이 '있었던 일'로 기억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유력매체에 광고를 싫으면서까지 부정하려하는 그 '있었던 과거'가 시간의 흐름 속에 씻겨져 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눔의 집이 전국 8개 고교에서 순회 증언을 한 것은 참으로 좋은 기획이다. 증언을 듣는 학생들의 오열과 참혹해하는 눈빛에서 우리의 불행했던 시간이 부국과 민족화합의 미래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순회 증언을 고등학교의 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 시대의 '어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증언은 대선 정국 속에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어른'들도 한 번은 들어야 할 살아있는 역사의 교훈이 아니겠는가?

'종교자유' 칼럼

17. 사립학교법 바로 보기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사학, 권위의식 버리고 초심으로"

현대사회는 자유 · 평등 같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이다.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 사법(형벌)은 물론 의료 · 복지 · 교육 분야는 오히려 공공적인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공공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의료법 · 사회복지법 · 사립학교법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에는 비영리법인으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종교분야도 '종교법인법'을 제정, 반사회성을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학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보수 종교계 간의 기싸움으로만 비쳐지거나, 일부 보수 언론까지 끼어들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동안 사학재단이 목청을 높이던 '재산권 · 자율성 침해'나 '종교교육 자유의 제한' 등은 이미 억지임이 드러났고, 그 외의 몇 가지 주장 역시 무리한 것들이다.

첫째, 얼마 안 되는 비리사학을 잡기 위해 모든 사학들을 범죄집단처럼 몰아가는 게 억울하다고 한다. 비뚤어진 뿔을 잡기 위해 소 잡는 격이라는 말이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년 1천억 원에 가까운 회계조작, 횡령, 채용 및 급식 비리 등 수십 개 사학들의 비리로 인해 피해 받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수만 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극소수 운운할 염치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더구나 종교사학들을 함께 고려하면, 문제사학이 극소수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진다. 480여 개 종교사학에서 자신의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종교교육과 종교차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속에서 고통 받는 학생들의 수는 수십 만 명이 될 것이 아닌가.

둘째, 개정 사학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라는 세력이 학교를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교조 소속 교사가 학교운영위원이 될 확률은 5.3%, 개방형이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0.27%라고 한다.

그 인원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저 상징적인 개방일 뿐이다. 사학재단들의 엄살은 이것저것 노출되는 것이 껄끄럽거나 편견에 의한 과장된 주장에 불과하다.

물론 전교조의 성격, 투쟁의 내용과 방식 등에의 동의 여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역사적으로 공과가 분명히 평가될,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또 하나의 얼굴이다.

전교조를 지목해 불필요한 과장과 원색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자극하고 호도하는 것은 교육자적인 태도도 종교인의 심성도 언론인의 정도도 아니다.



사학의 종교자유와 교수 권리보호를 위한 공청회.

셋째, 비리사학은 현행법으로 엄중히 다스리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강제하느냐는 주장이다. 그럴듯하다. 그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동안 비리에 비교적 자유로운 일부 사학들이 함께 매도되며 규제받게 되는 게 억울하다며 줄기차게 해오던 얘기다. 그러나 그동안 사학운영에 관해서 설립자 개인의 자질과 선의에만 의존함으로써 전횡과 불법을 막아낼 제도화된 견제 · 감시 장치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물론 교육부 감사기구의 규모나 전문성이 그 많은 사학들을 관리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변명도 일리는 있다. 감사능력을 키우는 일이 우선 과제인 이유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 태생적 문제가 있다. 그것은 몇 개의 사회세력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옴짝달싹도 못하는 소위 '사학커넥션'이라는 것이다. 종교사학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사학커넥션은 종교를 배경으로 교육계와 언론, 정치권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학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종교계가 발 벗고 나선다. 교육부는 보호자와 감시자 역할을 착각하는 듯 적당히 덮으려 하고, 사학과 무관치 않은 일부 보수 언론들은 사학 입장에서 맹렬히 펜을 휘두른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 그 중에도 보수 정당일수록 돈과 인맥이 있는 사학 편을 들기 바쁘다. 심지어 목사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삭발했을 때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3명은 국회에서 삭발까지 했다. '종교-학교-교육부-언론-한나라당'이란 사학커넥션이 이유 있다는 반증이며, 국민들이 절망하는 이유다.

건강한 교육을 되찾기 위해서 사학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익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대안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사학재단은 '사유재산 · 자율성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왜 국민이 냉담한지, '사학=비리와 종교폭력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초심으로 돌아가 고민해야 한다.

교육과 종교의 근본에 충실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기득권과 권위만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 "책임감을 즐기는 사람은 권위를 얻지만, 단지 권위를 즐기는 사람은 오히려 권위를 잃기 마련이다." 포브스지 발행인 말콤 포브스의 말을 새겨 볼 때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대전 충북지사	대전 / 충북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경남 남부지국	경남남부일원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